



03 2018 MARCH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지

굿모니 **인천**  
INCHEON MONTHLY MAGAZINE



COVER STORY  
Retro? Newtro!

때론 오래된 것이 더 새롭고 아름답다. 인천은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 최초와 최고가 공존하는 도시다. 시간의 흔적을 온전히 보듬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들어가 본다. 사진은 '인천여관 X 루비살롱'에서 이규영(좌) 대표와 이의중(우) 작가.



## 시대의 아픔 관통한 돌문



무지개 문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본다. 오늘은 온 세상이 물기에 폭 젖었다. 개항 후 중앙동과 신포동 일대에 살던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려, 응봉산 허리를 잘라 석문石門을 뒀다. 홍예문虹霓門이다. 110여 년 동안, 이 길 사이로 수많은 사연이 스쳐 지났다. 눈이 잔뜩 내리는 날에는 동네 아이들이 비닐 포대를 들고 비탈길을 오르고,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은 책가방을 메고 시계 추처럼 오갔다. 출사지로 소문나면서 전국에서 카메라를 멘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했다.

폭 6.7m. 처음 우마차가 다니던 길은, 지금 차 한 대가 지나기에도 벅차다. 그 좁은 길로, 시대의 아픈 역사가 관통했다. 단 1km, 오르막길로 시작해 내리막길로 이어지는 이 길이 유독 길게 느껴지는 이유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발행처 인천광역시 — 발행일 2018년 3월 1일 —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 편집인 박혜란(브랜드담당관)  
편집장 유동현(홍보콘텐츠 팀장) — 기획·취재 편집위원 정경숙, 편집위원 김윤경 — 사진 김보섭·류창현·김성환·최준근  
디자인·인쇄 (주)씨에디터 —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 CONTENTS

- 04 인천미소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外
- 06 화보 2018 봄
- 08 커버스토리 Retro? Newtro! ③ 인천여관×루비살롱
- 10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 도시 재생 성공 사례들
- 18 99주년 3·1절 만국공원과 13도 대표자 회의
- 22 인천 VS 세계 도시 ③ 송도 센트럴파크 VS 시카고 밀레니엄파크
- 26 인생 2모작 노인 일자리
- 32 브랜드 인천시 캐릭터
- 36 얼굴 좀, 봅시다 아프리카 목공소·철공소 대표 김영수
- 38 문화 캘린더 제99회 삼일절 경축식 外
- 42 시정뉴스 ‘재정 정상 단체’ 전환 확정…‘희망 인천시대’ 열렸다 外
- 48 의회뉴스 의정활동 우수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外
- 50 컬러링 인천 인천창업초등학교
- 52 Info Box 2018년도 제2기 여성 복지관 수강생 모집 外
- 57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브랜드, 철학을 팔다 무인양품(MUJI)
- 58 모닝 커피 한잔 우리 시대의 문화유산
- 59 인천 사는 나무 강화 사기리 탕자나무



굿모닝인천은 웹진(goodmorning.incheon.go.kr)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한 ‘굿모닝인천’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전자책으로도 서비스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 서점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문의 인천광역시 브랜드담당관실 032-440-8306

인천과 독자를 잇는 ‘미’디어  
독자에게 인천을 알리는 ‘소’식통  
‘인천미소’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늘 열려 있습니다.  
항상 미소 짓습니다.

# 인천미소

‘미’디어 ‘소’식통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 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allwaysincheon)  
블로그(blog.incheon.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allwaysincheon)  
카카오토리(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allways\_incheon)  
웨이보(www.weibo.com/incheon)

##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 엄마가 보낸 편지 같은 ‘굿모닝인천’

독자 손보순 서울시 강남구



매달 초면 어김없이 우편함 앞에서 ‘굿모닝인천’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  
이 늘 이렇게 설레고 애틋한 이유는, ‘굿모닝인천’이 2012년에 작고한  
엄마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딸에게 보내는 편지  
같다고 할까요.

이번 달도 ‘와’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마침 손녀가 위로해 준다고  
케이크를 들고 왔네요. 귀여운 나의 첫 손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생이  
됩니다. 늘 제 곁에서 함께하는 ‘굿모닝인천’.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도  
첫 손녀의 대학 입학을 기원하겠지요.

인천이 고향인 엄마는 자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먹은 싱싱한 회를 떠  
올렸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회를 사드려도 소래포구 회만 못하다고 하  
셨지요. 맥아더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은 나이드 딸이 더 나이드 엄마와  
손잡고 놀러 갔던 곳입니다. 근처 폼 나는 음식점에서 만찬도 즐겼던, 엄  
마와 딸의 마지막 나들이였죠.

2월호에서는 마지막 장에 있던, 강화군 석모도의 보문사 향나무 이야기  
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보문사 대웅전 우측 석실(石室) 앞에 있는 나무라  
지요. 수령이 600년이 넘는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6·25 전쟁 때 죽은  
줄 알았는데 소생했다니 직접 가서 꼭 한번 만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  
버지는 그 전쟁에서 전사해 다시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항상 엄마처럼 애틋한 ‘굿모닝인천’, 지난 2월에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준 고마운 ‘굿모닝인천’. 엄마가 하늘에서 보낸 편지 같은 소중한 존재.  
인천시와 ‘굿모닝인천’의 앞날에 환한 빛이 비치길 바랍니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 ☎ 440-8305/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

##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의 목소리’



### 초·중·고 무상 급식, 전국 최초, 역시 인천!

2018년 인천시는 고교 무상 급식을 시행하면서 광역시 중에서 영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까지 무상 급식을 하  
는 전국 최초의 도시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시가 보육과 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인  
천’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 김승건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더 늘어나길

‘굿모닝인천’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알기 쉽게 안내해주어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잘 소개해주어 덕분에 체험의 기회도 늘었고요. 인천에는 송월동 동화마을, 인천어린이과학관  
등 아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이 많지만 아직 서울에 비하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천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더  
많이 생겨서 인천 시민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민도 즐겨 찾으면 좋겠습니다.

- 변상규 남동구 구월동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세상을 꿈꾸며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시 버스에도 수소전기차가 도입되  
면 좋겠습니다. 거리를 다니는 수소전기차가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면서 도시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을 하  
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 편히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선물해 주세요.

- 박지영 남동구 간석동

### 오감 만족 도시, 인천

타 시도에 사는 사람들도 ‘굿모닝인천’을 읽고 인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좋은 글과 사진을 읽으면,  
인천에 방문하지 않아도 오감이 만족되고 또 친근함을 느껴요. 나중에 꼭 그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이 인천을 더욱 가까이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 이종민 서울시 송파구

소중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 ‘굿모닝인천’ 1년 모으면 ‘올웨이즈 인천!’

‘굿모닝인천’을 올 한 해 매달 모아 차곡차곡 쌓으면,  
인천시 도시 브랜드 ‘올웨이즈 인천(all ways INCHEON)’이 완성됩니다.  
‘굿모닝인천’ 2018년 컬렉터에 도전해보세요!







서구 송학교개

## 내일 봄春

사진·글 유동현 본지 편집장

1월은 시간의 시작입니다.  
3월은 계절의 출발입니다.  
한 해의 실제적인 첫발은 춘삼월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각종 스포츠가 시즌 오픈open 됩니다.  
봄은 스프링spring입니다.  
개구리도 아이들도 그리고 들판도 마구 튀어 오릅니다.  
삼라만상이 움츠림에서 벗어나  
힘차게 신나게 활짝 깨어납니다.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동구 인천창영초등학교



남동구 인천대공원





만안동의  
아미

봄 햇살은 산과 들에만 있지 않습니다.  
후미진 골목의 나른한 빨래, 재래시장의 봄나물 바구니,  
도심 농부의 작은 텃밭, 공원의 어르신 장기판 위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얼굴에도 따뜻하게 비칩니다.  
이제 새봄의 기운이  
인천의 새 하늘 새 땅 새바다를 행복하게 복돋아 줄 것입니다.  
인천은 봄, 내일은 봄.



중구 사동



중구 송월동

계양구 계산시장



중구 자유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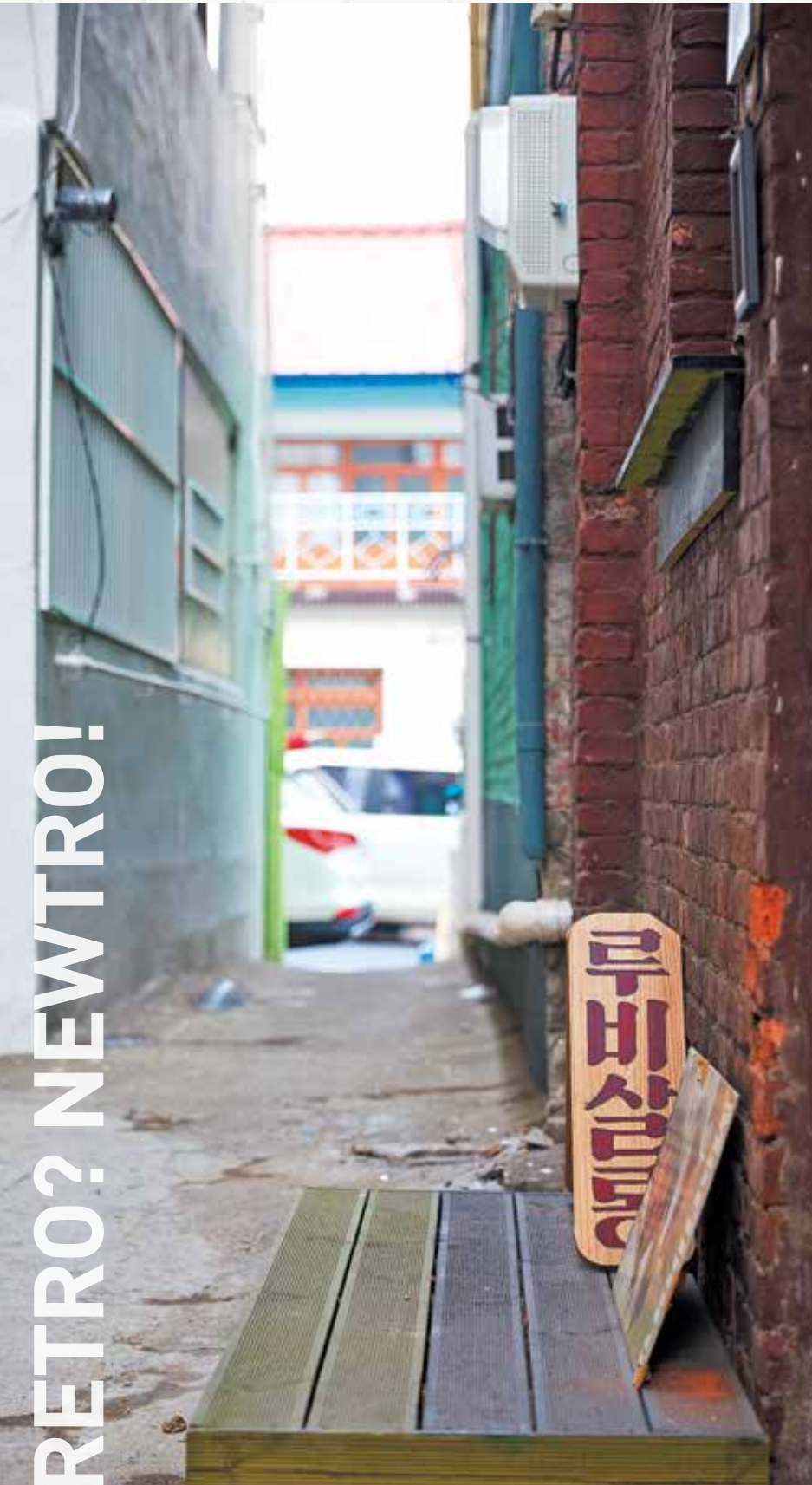


만안동의  
아미



남동구 송기천





# 마음 채울 빈 방 있습니다

인천여관 X  
루비살롱

때론 오래된 것이 더 새롭고 아름답다.  
인천은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  
최초와 최고가 공존하는 도시다. 시간의  
흔적을 온전히 보듬어 현대적인 감각  
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들어가 본다.  
그 세 번째로, 골목 깊숙이 방 한 칸 내어  
주고 지친 마음 어루만지는 ‘인천여관×  
루비살롱’을 찾았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 삶이 고단할 때 '몸 누이러 오세요'



“주변에서 ‘미친놈’이라고 해요. 하하.”  
돈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다.  
“돈은 서울에서 벌지만, 인천에서 쉬고,  
살아가고 싶다”는 이규영 대표.

중구 관동 후미진 골목, 낡고 오래된 여관의 문을 살며시 연다. 눅진하고 고단하지만  
따스한 공기가 맴돈다. 호텔도 게스트하우스도 아닌, ‘여관’이란 이름에서 전해지는  
남루하면서도 친근한 정서. 무수한 인생의 곡절과 사연이 쌓이고 쌓인 공간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건물은 1965년 처음 ‘인천여관’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1970년대 활동한 가수 이  
숙이 주인이었다. 미군부대 무대에서 데뷔한 그는 한창때 ‘눈이 내리네’ ‘우정’ 등의  
노래를 부르며 이름을 떨쳤다. 1990년대에는 노부부가 여관을 넘겨받지만, 큰길가  
에 있는 번듯한 숙박업소와의 경쟁에 밀려 결국 문을 닫고 만다. 사람들이 떠나고 텅  
그러니 남은 공간은, 10년 후 고치고 다듬어져 ‘인천여관×루비살롱’으로 다시 태어  
났다. 그렇게 세월 따라 주인 따라 건물의 운명도 바뀌었다.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 인천의 상징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골목 깊숙  
이 숨겨져 세상의 관심 밖에 있지만 의미 있는 공간이지요. 속도에 아랑곳 않고 낡고  
오래된 것들이 나름의 이야기를 지켜가는, 이 도시와 닮았어요. 이름부터 ‘인천’여관  
이잖아요.” ‘인천여관×루비살롱’의 주인장 이규영(43) 씨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  
다. 서울에서 이름난 인디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속도 붙은 인생길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안식처는 고향 인천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명확해요.  
‘인천여관’이 여기 있으니까요.” 서울에 가보니 별게 없어 다시 동네로 왔다면, 그가  
환하게 웃는다.





‘출망흙백화점’ 전, 원종은(좌), 상아하(우) 작가의 방.  
다들여지지 않은 공간 구조는 작가들에게  
상상력을 풀어놓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한다.

여유가 필요할 때  
‘마음 누이러 오세요’

오래된 흑백 사진 같던 공간은, 이 순간 다채로운 빛으로 채워지고 있다. 혼자만의 사연이 깃든 비밀스러운 방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됐다. 그 첫 번째로 음악 도시 인천의 이야기가 담긴 ‘비욘드 레코드(Beyond Record)’ 전시 열렸다. 전시를 기획한 고경표(36) 큐레이터는 6년 전 오석근 사진작가와 결혼하면서 인천과 연을 맺었다. 지역을 알기 위해 재즈클럽 ‘버텨라인’에 몸담으면서 자연스럽게 인천 음악사에 젖어들었다. 2년여에 걸쳐 전성기 때 인천에서 활동한 밴드와 옛 음악 공간을 찾아 정리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1980년대 후반부터 관교동 일대에 머리 긴 오빠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서울보다 연습실 대여료가 싸면서도 접근성이 뛰어났기 때문이지요. 당시 시대상과 지역의 고유한 색깔을 엿볼 수 있어요.”

현재 이곳엔 세 번째 전시 ‘출망흙백화점’ 전시 열리고 있다. 전시를 기획한 원종은 씨를 비롯해 6명의 개성 넘치는 작가들이 뜻을 모았다. 이미지적으로 예쁜 자음과 모음을 결합한 ‘출망흙’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그 어떤 뜻이나 이념도 담고 있지 않다. 뜨개, 가죽, 패브릭 공예 등 예술과 일상의 벽을 넘나드는 작품이 전시장을 가득 메운다. 원 작가의 방은 한 땀 한 땀 뜨개를 이으며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만다라의 과정을 그렸다.

50여 년 시간이 고인 공간엔,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기다란 복도를 따라 이어진 좁은 방, 옛날식 타일을 투박하게 붙인 욕실은 이곳이 여관으로 살아온 세월을 보여준다. 오래되어 광택을 잃은 자개장과 낡은 책상 같은 소품은 재개발 지역에서 거둬들인 보물이다. 사라져간다고 해서 잊을 수는 없다. “버려진 물건을 다시 쓰는 행위 자체가, 지나온 상처를 어루만지고 새로운 안식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인천여관×루비살롱’에서 팟 캐스트 ‘부둣가 라디오’를 진행하는 배영수 씨. 앞으로 인천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을 소개하고, 인천의 문화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인천여관’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이의중 작가.  
그는 ‘결국 공간을 살리는 건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은 공간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깊게 새겨 놓으면, 내일 소중한 역사가 되겠지요.”

골목 한편에서  
‘추억이 기다려요’

오래된 골목, 그만큼 오래된 여관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품에 안는다. 지나간 기억을 붙잡아 풀어놓은 이는 ‘건축재생공방’의 이의중(39) 작가,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다. 단순히 낡은 건물을 다시 살리려 한 게 아니다. 자욱이 쌓인 먼지를 털어 본연의 가치를 찾아내고, 오늘 그리고 내일 더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 한가운데는 사람이 있다. “공간을 되살리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힘, 바로 사람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대표는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여러 시도를 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작가는 ‘인천여관’의 가치를 사람들이 채워가는 현실이 기쁘고, 또 앞으로 어떤 의미가 덧입혀질지 기대에 차있다. 그리고 더 이상 재생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의미를 찾으리라 믿는다. “그저 ‘여관’이었다면 쉽게 허물어졌겠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은 공간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깊게 새겨 놓으면, 내일 소중한 역사가 되겠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룻밤 따뜻하게 묵어갈 수 있는 방을 내어주던 곳. 오늘 이 안엔, 차 한잔 추억 한 모금 그리운 이들이 저마다 속내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른다. ‘인천여관’에 오래도록 머무르고 싶다.

information



인천여관×루비살롱  
중구 신포로31번길 20  
☎ 070-7757-4712





인천역 너머로 보이는 개항장 일대

## 재개발보다 재생, 도시가 살아가는 법

낡은 것은 고쳐 쓸 수 있다. 부수고 다시 만드는 방법만이 능사는 아니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재개발’하지 않아도 ‘재생’시킬 수 있다. 두서없이 도시에 쌓인 기억들을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말이다. 인천이 재생의 방점을 원도심에 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글 김보미 경향신문 기자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셔터스톡



차이나타운



배다리

## 개항의 역사가 고스란히... 인천 원도심의 가능성

인천은 대한민국 개항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원도심과 최첨단 미래 도시로 설계된 신도시가 공존하는 도시다. 지난 15년여간 송도국제도시 등의 지역에 하늘로 쭉쭉 뻗은 고층 건물을 지어 만든 스카이라인이 인천의 새로운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보지 못한 또 다른 축이 있다. 1883년 첫 개항의 역사를 열었던 중구를 중심으로 원도심 곳곳에 남아 있는 ‘시간의 유산’들이다. 우리나라 철도역의 원조인 인천역부터 화교 문화가 응집된 국내 최고의 차이나타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원인 자유공원, 그리고 1960~1970년대 인천 지역의 유일한 현책방 골목이자 최근에는 드라마 ‘도깨비’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동인천 배다리 현책방 거리까지 시에서 재생을 준비 중인 구간에는 근대의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110년 전에 지은 창고, 알록달록한 벽화로 재단장한 송월동 동화마을,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신포국제시장 같은 도시의 역사가 배어 있는 공간이 내뿜는 아우라는 상당하다.



일본 개항 무역도시 요코하마의 변신

도쿄 서쪽 요코하마(横浜)는 일본이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인 창구였고, 20세기 들어서는 공업 도시로 성장했다. 한국 근대화의 시작점이었던 인천과 닮았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항만, 조선소가 문을 닫았고 화물을 보관하던 창고는 버려진 채 황량한 공간이 됐다. 이에 요코하마시는 1980년대 항구 인근을 현대적으로 재단장하는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도시 재생을 통해 요코하마가 새로운 경제 기반과 문화 시설을 갖춘 도시로 거듭난 것은 근대에 지어진 유럽식 건축물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아카렝가(赤レンガ, 붉은 벽돌)’라고 불리는 메이지 시대에 지어진 창고는 현대식 고층 건물과 어우러져 요코하마의 보물이 됐다.

도시의 기억과 흔적이 자산... 구도심 재생한 나가하마시

일본 오사카와 나고야 사이 시가현 나가하마시(長浜市)는 과거의 기억과 흔적들을 자산으로 삼아 구도심을 재생한 사례다. 좁은 골목들이 연결된 1.5km 거리는 에도 시대부터 전국의 장사꾼과 돈이 모였고, 산업화 이후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 달에 20만 명이 찾던 곳이다. 그러다 1970년대 유통 환경의 변화로 재래시장이 침체되면서 불빛이 사그라졌다.

도시를 살린 것은 옛 상점가에 남아 있던 근대 건축물들이다. 검은 회반죽으로 벽을 칠한 구로카베(くろ壁), 검은 벽의 건축물이다. 200년 넘게 간장을 만들던 공장과 버려진 교회는 새로운 ‘검은 벽 가게’가 됐다. 여기에 서구의 유리 공예를 흡수하면서 옛 건물과 서구의 유리 제품들이 한데 어우러진 골목이 소문을 탔고, 연간 200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됐다.



요코하마의 변신(상)  
나가하마시의 재생(하)



싱가포르 빌딩 숲속 오래된 쉑하우스(상)  
녹색 항구로 거듭난 독일 함부르크(하)

미래와 과거의 공존... 싱가포르 빌딩 숲속 오래된 쉑하우스

싱가포르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이국적 풍경으로 도시에 숨을 불어넣었다. 남쪽 탄종파가르와 차이나타운, 카통 빌리지 일대를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해 명소로 만든 것이다. 여기에는 1층에 상점이 있고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래된 목조 가옥들이 큰 역할을 했다. 쉑하우스(ShopHouse)라고 불리는 건물들이다.

탄종파가르는 과거 상업의 중심지였지만 신도심으로 기능이 옮겨가면서 노후 공간이 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 지역의 쉑하우스를 철거하는 대신 보존하기로 했다. 오래된 쉑하우스는 싱가포르의 최신식 고층 건물들과 한 공간에 펼쳐지면서 독특한 볼거리를 만든다. 싱가포르 당국은 100곳 이상의 지역에서 쉑하우스를 비롯한 7,000여 채의 옛 건물들을 보존하고 있다.

쇠퇴한 항구도시가 녹색항구로, 독일 함부르크

독일 함부르크(Hamburg)는 인천처럼 항구 도시다. 유럽 최대 항구가 있고, 도심에 엘베(Elbe)강이 흐른다. 도시를 오가는 물류의 역사만큼이나 많은 문화를 받아들인 곳이다. 독일 정부가 ‘엘베를 뛰어넘어’라는 문구를 내걸고 함부르크의 옛 항구 하펜시티(HafenCity)를 ‘녹색 항구’로 재탄생시킨 것은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마저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낡고 오염된 구도심은 재개발을 통해 고층 건물과 상점들이 들어섰는데, 그것만으로는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매년 홍수가 났던 하펜시티에 강화문을 설치하면서 반전이 펼쳐졌다. 차수 시설 덕분에 주민 2,000명이 거주하고 기업·국제기구의 본부들도 들어온 도심지가 됐다. 홍수가 나도 문만 닫으면 안에선 또 다른 일상이 펼쳐진다.

유럽 재생의 교훈,  
주민 참여가 관건

환경이 열악한 유럽의 구도심은 이주자들이 들어와 자리 잡은 곳이 많다. 영국에서 1990년대에 ‘커뮤니티 뉴딜’이라 불리는 마을 재생 움직임이 일어난 것도 이민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시점과 맞물려 있다. 주민 참여 없이 이윤을 좇아 이뤄지는 재개발은 오히려 원주민을 몰아내고 지역 격차만 키운다는 교훈을 경험을 통해 얻었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1998년부터 2011년까지 20억 파운드(약 3조원)를 쏟아부어 전국 39곳에서 주민이 중심이 된 재생을 시작했다. 특히 커뮤니티 뉴딜 사업은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 교육과 직업 훈련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한 지역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지원을

받은 시민 자치단체들이 사업을 맡아 범죄를 줄이고 뒤쳐진 학교 교육을 바꾸려 애썼으며 주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냈다.

인천의 원도심 역시 현재 다른 지역보다 주거 환경이 낙후돼 있다. 역사문화보전지구로 지정되거나 고도 제한에 묶여, 대형 개발이나 현대적 건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원도심 재생이 신도심과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도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과 불만을 줄여보기 위함이다.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위해선 그동안 시민들이 바랐던 변화된 도시의 모습이 정책이 반영돼야 한다. 재생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기존 거주민들이 새로 직면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인천시는 이미 행정이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 개발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새로운 도심 공간에 투영된 인천을 기대해본다.





## ‘임시정부’ 씨앗 뿌려진 자유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에는 제국주의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제국주의에서 벗어나려는 힘찬 몸부림이 있었다. 1919년 4월 2일 만국공원에서 개최된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3도 대표자 회의는 제국주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려는 이 땅의 주인들이 펼쳤던 응전이었다. 이 회의는 흥진을 중심으로 하는 일단의 지사들이 정부수립을 목표로 인천의 만국공원에 모여 3·1독립운동 이후 고양된 독립의식을 바탕으로 식민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 회합을 가진 사건이다. 만국공원의 역사성을 제국주의시대 건축물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조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이다.

글 양윤모 인하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독립투쟁의 자랑스러운 기억

인천(제물포)은 조규에 따라 부산과 원산에 이어 세 번째로 1883년 개항했다. 부산이 일본인의 전관거류지 설치로 일본인에게 독점적 지위를 안겨주었다면, 인천은 청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이 공동으로 거류할 수 있는 국제적 개항장이었다. 최첨단의 서구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최초의 만남 장소가 되었다. 각국 조계지역은 외국인들의 별장과 사교적인 공간들이 들어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중 1888년 응봉산 일대에 조성된 만국공원은 한국 최초의 공원으로 유명하다.

자유공원은 처음에 각국공원으로 명명되다가 만국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조계제도가 철폐된 1924년 이후에는 서공원으로, 그리고 1957년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는 동상이 건립되면서 자유공원으로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명칭의 변화는 바로 만국공원의 역사, 나아가 인천의 역사, 그리고 한국 근대사의 격변과 굴절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만국공원에는 우리가 겪었던 아픈 기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독립투쟁의 자랑스러운 기억도 함께 존재한다. 일제 식민통치기를 독립투쟁기로 설명케 하는 결정적인 계기였고, 3·1독립운동으로 확산된 ‘정부수립운동’의 구체적인 최초 사례를 만국공원에서 찾을 수 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13도 대표자 회의’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  
만국공원 안의 존스톤 별장



현재의 자유공원 광장





인천 내리에서  
상점 철시 운동

1919년 3월 1일,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경기도(당시 인천이 속함) 내에만 25개 지역에서 303회에 걸쳐 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났으며 참가 인원은 6만8,100명, 이 중 사망자는 1,409명, 부상자는 2,677명, 체포자는 4,220명에 달하였다. 전국적으로 볼 때, 길게는 3개월여 동안 전개된 3·1운동은 인천 지역에서도 많은 민중의 참여하에 전개되었다. 특히 인천은 일본 동경에서 있었던 2·8독립선언의 경과가 국내로 전달되는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인천 내리(현 중구 내동)에서 잡화상을 운영하는 김삼수(당시 19세)와 외리의 객주집 사환인 임갑득(당시 16세) 등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상인들이 상점을 폐쇄하는 등의 항쟁을 하고 있음에도 인천 내에서는 아무도 상점 철시 등의 움직임이 없음을 유감으로 여겨 격문을 작성 배포하였다. 4월 1일부터 3일까지 이들은 3차에 걸쳐 ‘인천의 체면상 점포를 닫지 않으면 최후 수단을 취하겠다’ ‘인천에 있는 상업가가 폐점하지 않으면 인천 시가는 초토화될 것이다’ ‘속히 폐점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을 취할 것이다’ 등의 협박문을 인천 외리의 이복현 등 16개 점포와 동부 내리 장지섭 외 여러 곳의 점포에 투입하여 상점 철수와 폐점을 강요하다가 체포되었다. 당연히 일제에 의한 인천 지역의 경계는 그만큼 삼엄하게 전개되었다.



엄지손가락에  
흰 종이를 매시오

무엇보다도 인천 지역이 3·1운동과 관련하여 발언권이 있다면, 그것은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결과물인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집합지였다는 점이다. 4월 2일 오후, 만국공원에서 개최되었다는 ‘13도 대표자 회의’가 그것이다. 이 회의는 3·1운동 기간 국내에서 조직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유일한 사전 협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른바 ‘한성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만국공원 집회가 갖는 의미는 간단치가 않다.

한성정부 관련 인물들의 신문 조서 및 공판 시말서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해 본다. 먼저 3월 상순쯤부터 홍진과 이규갑을 중심으로 정부를 수립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 3월 상순 경 홍진은 자신의 집에서 한남규에게 임시정부 조직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는다. 이어 3월 20일경 한남수는 홍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독립운동의 각 단체를 모아 국민대회를 조직하고 독립에 대한 협의를 위해 각 단체의 대표자가 인천 만국공원에서 회합하자는 소식을 듣고 이에 찬동하였다.



상해임시정부와 임시 의정원 요원들

또 3월 31일과 4월 1일 이규갑은 안상덕에게 만국공원에서 회합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각 방면의 대표자로 참석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3월 중순 경 이규갑은 김사국에게 한남규와 함께 국민대회를 조직하고자 하니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홍진은 3월 말쯤 인천에서 김규(김교훈)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김규는 홍진에게 국민대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계획하고자 각지의 대표자들을 인천 만국공원에 모이게 하였는데 유교계의 대표로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인적 연락망과 관계망을 통해, 4월 2일 오후 인천 만국공원에서 ‘13도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일제의 감시가 심한 상태에서, 상호 인식을 위해 엄지손가락에 흰 종이나 형짚을 감아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도 서로 알게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였다. 만국공원의 회합에서는 임시정부의 조직, 파리평화회의에 대표 파견, 그리고 국민대회 개최를 통해 정부를 수립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이어 4월 8일 이전 어느 날 서울 한성오의 집에서 홍진, 이규갑, 한남수, 김사국 등이 모여 임시정부 및 국민대회에 관한 구체적인 토의를 하였다.

인천 관교동에 있던  
홍진 선생의 묘와 비석



임시정부 시절의 홍진 선생



독립운동사상  
기념비적인 성과

4월 2일 만국공원에서 개최된 ‘13도 대표자 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3·1독립운동으로 고양된 독립의식으로 국내의 각지에서는 독립정부수립운동이 일어났다. 국외에서의 정부수립운동이 일제의 감시망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면, 국내에서의 정부수립운동은 일제의 탄압과 감시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3·1운동이라는 전 민족적 독립운동이 전개된 상황이라 더욱 그랬다.

이럴 때, 홍진과 이규갑을 비롯한 지사그룹은 3월 상순경부터 독립정부 수립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에 따라 은밀하게 동지를 포섭하였고, 그 결과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게 되었다. 이 회의는 일제의 감시망을 뚫고 독립정부를 수립하려는 의지를 가진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인 최초의 회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조직이 결정되었고 파리강화회의의 대표 파견 문제가 결정되었으며,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계획이 결정된 회의였다.

여러 가지 다른 성향에도 불구하고 만국공원 회합 참석자들은 독립정부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독립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 일제의 삼엄한 감시망 속에서 계획과 추진 그리고 결과를 보았다는 점은 독립운동사상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정부수립운동에 인천의 만국공원에서 개최된 대표자 회의가 중심에 있었다는 점이 바로 만국공원의 역사적 의미라고 하겠다.





SONGDO  
CENTRAL PARK

VS



CHICAGO  
MILLENNIUM PARK

## 백만불짜리 야경이 있는 국가대표 공원

미국 시카고와 닮은 도시가 국내에 있다면 어디일까. 송도국제도시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웃하겠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닮은 구석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두 도시는 계획도시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고 수변에 위치해 바람과 물의 도시라는 점도, 개성 넘치는 건축물이 많은 점도 닮았다. 도시 한복판에 공원이 있다는 점도 두 도시의 공통점이다.

글 고정석 한국일보 산업부 기자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셔터스톡



### 수변에 위치한 도심 속 휴식 공간

송도 센트럴파크는 인천 연수구 해안을 간척해 만든 인공 공원이다. 송도 개발 계획에 참여한 미국 게일 인터내셔널의 스탠 게일 회장이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세계적 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조성했다. 송도 센트럴파크 면적은 약 37만m<sup>2</sup>로 축구장 면적의 52배, 여의도공원의 1.6배 규모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9분의 1, 시카고의 명소인 그랜트파크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국내 도심 상업 지구 한복판에 있는 공원치고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랜트파크와 곧바로 연결된 밀레니엄파크는 규모가 약 10만m<sup>2</sup>로 송도 센트럴파크보다 아담하다. 동쪽으로 오대호 중 하나인 미시간호를 끼고 있는데 호수라 해도 규모가 남한 면적 절반에 달해 호숫가에 이르면 해변에 온 느낌이 든다. 바다 같은 호수가 가까이 있고 나머지 삼면이 고층 건물로 둘러싸인 공원이란 점은 자연스레 송도 센트럴파크를 연상시킨다.

1871년 큰 화재로 생긴 온갖 잔해를 처리하기 위해 미시간호를 매립한 토지 위에 만든 것이 그랜트파크인데, 이 공원을 지나는 기차의 차고지로 쓰이던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밀레니엄파크가 만들어졌다. 이름처럼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2000년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이 늦어지며 2004년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송도 센트럴파크(위)  
시카고 밀레니엄파크(아래)



# SONGDO CENTRAL PARK

송도 센트럴파크

준공 2009년 11월  
투자 비용 1,200억원  
규모 37만750m<sup>2</sup>  
주요 시설  
해수로, 트라이보울(복합 전시관), 조각정원, 초지원, 지하주차장



트라이보울(좌)  
펜타포트락페스티벌(우)

## 야경은 단연 송도 센트럴파크가 으뜸

송도 센트럴파크를 처음 찾았다면, 특히 밤에 방문했다면 모두 외국에 온 것 같다는 말을 한다. 송도 센트럴파크의 풍광을 이국적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공원 내부의 조경 뿐만이 아니다. 송도에 밤이 찾아오면 서울에서도 보기 어려운 독특한 외관을 지닌 고층 건물들이, 바닷가의 탁 트인 공간 사이로 반짝이며 공원을 비춘다. 마천루와 여백의 조화가 그려내는 도심의 화려한 경관은 해외 유명 공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밀레니엄파크와 송도 센트럴파크의 가장 큰 차이는 수로의 유무다. 국내 최초의 해수 공원인 송도 센트럴파크에는 서해 바닷물을 끌어와 만든 1.8km 길이의 인공 수로가 있다. 공원이 수로를 중심으로 길쭉하게 뻗어 수로 양옆 산책로를 걸어 왕복하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수상택시나 보트, 카약, 카누 등을 이용해 수로를 따라 공원의 경관을 즐길 수도 있다. 이 수로는 특히 공원의 야경을 드라마틱하게 바꿔놓는다. 마천루의 각양각색 조명과 수로에 비친 불빛,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석양 등 이 공원이 연출해내는 밤의 풍경은 인천이 자랑할 만한 백만불짜리 보석이다. 여름이라면 야간 운행하는 수상택시를 타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몰과 야경을 감상하는 것을 추천한다. 공원과 인접한 한옥 호텔, 한옥마을에서 공원을 조망하는 것도 괜찮다.

## 음악과 문화가 숨 쉬는 공원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공원은 시민들이 모이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송도 센트럴파크의 대표적인 조형물인 트라이보울은 사람이 3개 이어진 듯한 모양의 건축물로 복합 전시관으로 쓰이고 있다. 얇은 인공연못 위에 자리해 마치 그릇이 물 위에 떠 있는 듯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밀레니엄파크도 예술적인 감각이 넘치는 조형물과 건축물로 유명하다. 콩 모양으로 생겨 ‘더 빈(The Bean)’이라 불리는 ‘클라우드 게이트(Cloud Gate)’는 이 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다. 15m 높이의 유리블록 탑 2개가 마주보고 있는 분수 광장 ‘크라운 파운틴(Crown Fountain)’도 여름이면 인산인해를 이룬다. 문화 공연은 사시사철 열린다. 재즈와 블루스로 유명한 도시답게 밀레니엄파크에선 매년 6월 시카고블루스페스티벌이, 9월에는 시카고재즈페스티벌이 열린다. 밀레니엄파크에 조성된 대규모 야외 공연장 제이 프리츠커 파빌리온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밀레니엄파크만큼 큰 공연장은 없지만 송도 센트럴파크에도 버스킹 공연장이 있어서 봄부터 가을에는 종종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이 공원에서 2km 정도 떨어진 달빛축제공원에선 매년 여름이면 국내 대표 록페스티벌인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송도 센트럴파크는 10월에 열리는 송도불빛축제로도 유명하다. 인파에 치이는 것이 싫다면 봄날의 한적한 평일 밤에 공원을 찾는 것도 좋다. 송도 센트럴파크는 매일 밤 불빛축제를 열고 있으니까.

# VS

# CHICAGO MILLENNIUM PARK

시카고 밀레니엄파크

준공 2004년 7월  
투자 비용 5,100억원  
규모 9만9,000m<sup>2</sup>  
주요 시설  
클라우드 게이트(AT&T플라자), 제이 프리츠커 파빌리온(공연장), 크라운 파운틴(분수), 매코믹 트리뷴 플라자 겸 아이스링크



크라운 파운틴(좌)  
제이 프리츠커 파빌리온(우)







## 커피 한 잔에 행복과 자부심을 담아요 실버 카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 지난해 12월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다. 인천시 노인 인력개발센터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어르신 바리스타 16명이 근무하는 실버 카페 ‘카페 지브라운’. 이곳이 여느 카페와 다른 점은 커피를 내리고 있는 바리스타들의 연령이다.

카페 지브라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영숙(검암동)씨의 나이는 74세. “우연히 집 근처 노인문화 회관에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권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YMCA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땀는데,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에 카페 근무원 모집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싶었죠.”

임 씨가 자신 있는 커피는 기본 아메리카노다. 가장 저렴한 메뉴이지만 한 잔 내릴 때마다 찌꺼기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등 허투루 내놓는 법이 없다. 맛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의 일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100%”라고 답한다. “이곳은 다른 카페에 비해 특별해요. 시니어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2인1조로 하루에 6시간씩 주2회 일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근무할 수 있어요. 우리 나이에는 이런 자리도 무척 귀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시니어 바리스타를 뽑아서 다행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요. 그래야 저와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에게 모범이 될 테니까요.”

한편 인천에는 총 21개의 실버 카페가 있고, 약 230명의 실버 바리스타가 참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 자리 잡은 실버 카페 ‘카페 지브라운’



## 인생, 다시 봄 이다

2020년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퇴임하는 시기다. 때가 돼 어쩔 수 없이 은퇴하지만, 이후에도 재취업을 통해 남은 인생을 꾸려가려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100세 시대.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해 인생 후반부를 멋지게 써가는 ‘액티브 시니어’를 통해 실버 라이프에 걸맞은 직업을 살펴보고 미래를 설계해본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최준근 자유사진가





실버 택배는 시니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한영호 할아버지가 택배 업무를 하고 있다.

### 일하는 기쁨과 건강, 두 마리 토끼 잡았죠 실버 택배

주안 더월드스테이트 관리소 앞. 이곳엔 어르신 택배원 14명이 근무하고 있다. 고령의 나이와 쌀쌀한 날씨가 무색할 정도로 택배 사무소는 활기가 넘쳤다.

아파트 단지 내 배송을 위해 물건을 분류하던 한영호(주안동·70)씨는 어느덧 3년 차 택배 베테랑이 됐다. 국내 굴직한 건설회사에서 40년을 일하다 정년퇴임한 그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가족들이 위험하다고 말리곤 했단다. 그러나 그는 “집에서 쉬는 것보다 일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한 씨는 “택배 일 자체가 운동이 되니까 별도로 건강관리를 안 해도 돼 좋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아파트 주민들도 자주 보는 얼굴이라며 반갑게 맞아 준다고.

인천시와 CJ대한통운은 지난 2016년부터 실버 택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마을 단위로 택배를 받으면 동·호수 분류와 근거리 배송을 60세 이상의 실버 택배원이 담당하는 구조다. 임금은 해당 자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보조금(15만

원가량)과 택배 기업이 주는 실적금액을 합해 지급된다. 근무 일수는 일요일을 뺀 주 5일이다. 사적인 일이 생길 땐 전화 한 통화로 무급휴가가 가능하다.

### 손자 손녀 돌보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복스타트 활동

어릴 적 할머니 무릎에 누워서 들던 옛날이야기는 스르르 잠이 들 만큼 편안하고 포근했다. 매일 들어도 매일 새로웠던 할머니의 이야기보따리가 도서관과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찾아가고 있다. 관내 도서관과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영유아들에게 책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복스타트 활동가’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해 우리의 옛이야기,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복스타트 활동가로 일해 온 최정애(만수동·68)씨는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방문한 복지관에서 복스타트 프로그램을 알게 돼 관련 교육을 도서관에서 받은 경우다. 그 후 동화 구연, 북코치, 그림책 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따면서 꾸준히 복스타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뭘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같은 노인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방법도 잘 모르니까... 요즘엔 노인인력개발센터에 가면 다양한 정보가 있더라고요. 이 나이에든 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삶에 활력을 주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돼요. 다른 분들도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인생을 즐기며 사셨으면 합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동화 구연 중인 최정애 할머니

### 다 같이 모여 일하니 기쁨도 배가 되죠 공동작업장



웃음이 떠나지 않는 연수구 공동작업장의 어르신들

작업장 안은 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담소를 나누고 웃는 사이에도 손은 쉬지 않는다. 사랑방 역할에 머무르고 있던 청학경로당에 설치된 연수구 공동작업장.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마스크팩 포장에 한창이다.

“여기에서는 80세 언니들이 일을 제일 잘해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집에만 있을 땐 늘 우울했는데, 여기 다니면서부터 성격도 달라졌어요. 출근하는 날 아침엔 너무 설레요.”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박분이(연수동·65)씨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다.

공동작업장은 기업의 일부 공정을 분양받거나 중소기업의 일감을 가져와 어르신들이 하루 3시간 정도 간단한 작업을 하며 공동으로 생산에 참여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기업의 인건비와 물류비를 절약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구별로 이런 공동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자리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런 곳이 있는줄 몰랐는데, 우리 사돈이 알려줘서 노인인력센터에 등록하고 다니게 됐거든요. 우리 노인들이 손끝 야무지고 끈기 하나는 최곤데, 이런 곳을 좀 더 늘려주면 안 되나요?”

한편 연수구는 오는 4월 옥련동 대암경로당에 공동작업장을 추가로 열 예정이다.



## 2018년 노인 일자리는 확대돼요 맞춤형 일자리

시는 지난해 노인 대상 맞춤형 일자리 2만5,250개를 제공했다. 올해는 사회 공헌형 공익형 일자리, 민간 구인·구직 연계를 통한 고령층 적합일자리 확대, 어르신 만족도 제고 및 수익증대를 위한 사업개발 지원 등 2만7,000여 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는 크게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나뉘며, 시니어 인턴십사업과 기업연계형사업도 진행된다.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모집 내용은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한 각 구의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알 수 있다.

앞으로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는 더 많은 노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인 세대 전반에 관한 사회적 역할 문제를 연구하고, 노인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지원과 사회참여프로그램 개발해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일단 가까운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먼저 등록하자.



### 공익활동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활동 기간** 노노(老-老)케어(9개월, 12개월), 그 외 유형은 9개월

**활동 시간**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활동비** 월 최대 27만원

**사업 유형**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활동

### 인력파견형 사업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참여 기간** 연중 참여

**근무 시간** 해당 기업의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급여** 해당 기업의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사업 유형**

관리사무(경영, 통계, 고객상담 등), 공공 전문(교육강사, 시험감독 등), 서비스(요양, 간병, 운송, 배달, 식당보조 등), 판매(요금정산, 매표, 주유 등), 단순 노무(청소, 환경미화, 주차관리 등)

### 시장형사업단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참여 기간** 연중 참여(서비스제공형 사업은 9개월 이상 자율적으로 운영)

**근무 시간**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에 따름

**급여**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에 따름

**사업 유형**

공동 작업형 : 공동사업장 운영 사업, 지역 영농사업, 기타 공동작업형 사업  
제조 판매형 :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 제작 및 판매, 매장 운영,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세차 및 세탁사업, 기타 제조 및 판매사업  
서비스 제공형 : 학교 급식 도우미, CCTV 상시 관제, 스쿨존, 교통 지원,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 지원, 기타

인생 2모작,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시작!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 886-1855,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 762-2288, 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 214-5700,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 888-8263,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 818-2111,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 466-8836,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 528-6080~1, 계양구노인인력개발센터 ☎ 546-9662~4,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 569-1363

✓ 은퇴 준비, 은퇴 시점에 하면 늦는다!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미리 준비하자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인천시 고령사회대응센터가 문을 열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산하조직으로 편제된 이 센터는 ‘시니어연구팀, 즐거운인생지원팀, 돌봄종사자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즐거운인생지원팀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를 중심으로 50대 이상 장년층의 인생 2모작을 돕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장년층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해 인생 재설계 지원 및 상담, 사회 재진출과 50+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전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니어연구팀에서는 50+세대와 노인인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에 알맞은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돌봄종사자지원팀은 각종 상담을 비롯해 직무 향상, 안전, 응급처치 등 실무 향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불안한 미래와 막연한 은퇴 준비, 혼자가 아닌 함께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점에서 고령사회 대응센터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는 올 4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 715-5491



즐거운인생  
지원팀

인생 재설계, 경력개발 교육  
네트워크 지원  
사회공헌 및 일자리



시니어  
연구팀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돌봄종사자  
지원팀

돌봄종사자 권익 향상 지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커뮤니티 형성 및 활동 지원  
휴게실 운영



## 잘 키운 캐릭터, 열 유명인 안 부럽다

카카오프렌즈,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캐릭터다. 유명세에 힘입어 21개의 오프라인 매장과 다양한 제휴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렇듯 잘 만들고 잘 관리된 캐릭터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유명인 모델을 내세우지 않고도 상품과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인지도와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캐릭터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발에 치중할 뿐 활용 전략과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지역민들조차 캐릭터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해외 지자체 중 캐릭터를 모범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 살펴보고, 최근 발표된 인천의 새 캐릭터 개발 과정과 활용 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글 이종선 시 브랜드전략팀장 | 사진 셔터스톡

# CHARACTER

### 구마모토의 부흥을 부른 ‘구마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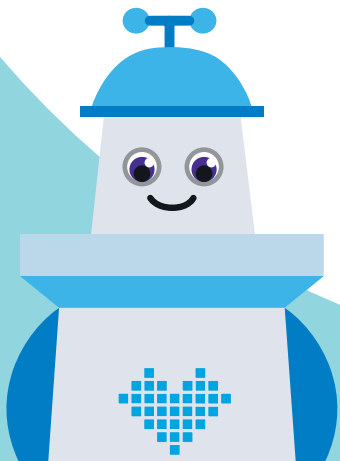


2010년 3월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일본 구마모토현은 지역을 알릴 방법을 고심했다. 처음에는 로고 개발을 추진했으나, 캐릭터가 더 뛰어난 홍보수단이라는 프로모션 디렉터의 조언에 따라 방향을 바꿨다. 캐릭터 이름 구마몬은 꿈을 의미하는 ‘구마’라는 단어가 지역 이름과 같은 점에 착안했고, 여기에 사람을 뜻하는 구마모토의 사투리 ‘몬’을 결합해 만들어졌다.

구마모토현은 캐릭터 ‘구마몬’을 철저히 의인화했다. 구마몬 홈페이지(www.kumamon-official.jp)에 따르면, 구마몬의 생일은 3월 12일, 성별은 수컷이 아닌 남자, 특기는 구마몬 체조와 서프라이즈를 발견해 알리는 일이다. 직업은 구마모토현의 영업부장이다. 구마몬은 재미있고 익살맞은 말투와 몸짓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지역행사를 쫓아다닌다. 외부 일정이 없을 때는 사무실에서 방문객을 맞는다.

구마몬의 성공은 구마모토현의 위상을 높였고 관광객 증가와 캐릭터를 통한 상품 매출 증대라는 커다란 효과를 가져왔다. 일본 브랜드종합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47개 현 중에서 2011년 32위에 지나지 않았던 구마모토현의 인지도가 2014년 18위로 꺾충 뛰어올랐다. 2015년 구마모토를 찾은 관광객은 2014년 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 구마몬 관련 상품의 매출도 2012년 2,935억원이던 것이 2016년 1조2,825억원으로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구마몬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은 단순한 디자인,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실질적 활용, 상표 무료화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검은 몸과 빨간 볼 등 디자인을 단순화해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여러 장소에 나타나 인간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어 나갔다. 덧붙여 구마몬 디자인을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제휴사업도 가능토록 했다.







## 베를린의 상징이 된 ‘버디 베어’

독일 베를린의 기차역과 중심가 어디에서나 마주치는 것이 있다. 앞 발을 위로 바짝 쳐든 곰 모양의 조형물이다. 배에 지도를 그려놓은 곰도 있고, 만국기를 그려놓은 곰도 있다. ‘어린 곰’이라는 베를린 말에서 따 온 베를린의 상징 ‘버디 베어(Buddy Bear)’다. 베를린의 도시 문장에 들어가 있던 곰이 도시 이미지로 본격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다. 독일 통일을 계기로 헤어리츠 박사 부부가 거리예술 행사로 기획한 것이 시초다. 2001년 6월 우정과 희망을 표현하기 위해 두 발을 들고 있는 곰을 기본으로 총 4가지 형태의 조형물 100여 개를 시내 곳곳에 설치했다. 2002년부터는 각국의 문화 그리고 종교 간의 관용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124개국의 작가들이 다양한 모습의 곰 조형물을 만들어 전 세계를 돌며 전시하는 유나이티드 버디 베어(United Buddy Bear, 국내명 ‘아름다운 버디 베어’)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2005년 10월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된 ‘아름다운 버디 베어’ 행사에서는 140여 개의 버디 베어 조형물 가운데 남한 버디 베어와 북한 버디 베어가 평화롭게 나란히 서있는 모습도 선을 보였다. 버디 베어는 독일인의 지혜로움과 우직한 성향을 반영한 도시 상징물로, 도시 마케팅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베를린의 손님맞이 캐릭터로 활약하고, 분단의 역사를 지닌 도시에서 탈피해 평화의 상징이 된 도시 이미지를 홍보한다. 또한 도시 곳곳에 서로 다른 모습의 곰 조형물을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 CHARACTER

세계 주요 도시의 캐릭터

도시	일본 구마모토현	독일 베를린	싱가포르	벨기에 브뤼셀	일본 교토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만	영국 리버풀	프랑스 리옹
캐릭터	구마몬	버디 베어	머라이언	마네컨 피스 (오줌싸개 소년)	타와와짱 (교토타워)	미피	댐퍼 베이비 (타이베이 101타워)	슈퍼램바나나 (양과 바나나의 결합)	리옹 (사자)

## 인천의 새 캐릭터 ‘등대를 사랑하는 점박이물범 친구들’

2017년 12월 28일 인천은 새로운 캐릭터인 ‘등대를 사랑하는 점박이물범 친구들’ 디자인을 발표했다. 2016년 11월 말부터 기존 상징물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캐릭터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시민들과 함께 캐릭터 후보군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호감도, 적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등대와 점박이물범이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이다. 스토리텔링, 사실적 요소의 단순화, 의인화 및 형태 변화, 다양한 표정 변화 등 총 6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디자인 후보 안이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외국인에게도 선호도를 묻는 과정을 거쳐 최종 디자인과 캐릭터별 스토리를 발표했다. 캐릭터 이름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했다. 등대의 이름은 ‘등대리’다. 대한민국 최초의 불빛인 팔미도 등대의 후손으로 인천의 길을 밝히는 든든한 지킴이다. 늘 뒷짐을 진 채 묵묵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는 치명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 점박이물범 친구들 중 첫째는 ‘버미’다. 백령도를 주름잡다가 이제는 본토에 진출해 인천을 지키는, 호기심 많고 씩씩한 점박이물범이다. 둘째는 ‘아이니’다. 등대를 사랑하고 모자 수집과 수영 정리가 취미인,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점박이물범이다. 셋째는 ‘꼬미’다. 키는 가장 작지만 운동은 가장 잘하는 장난꾸러기 꼬마다. 인천의 새로운 캐릭터 ‘등대를 사랑하는 점박이물범 친구들’은 시민과의 소통 도구이자 인천의 도시 이미지를 실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누구나 자유롭게 캐릭터를 활용해 개개인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갖춰 캐릭터와 시민들 간의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인천의 캐릭터 마케팅은 이제 시작이다. ‘등대를 사랑하는 점박이물범 친구들’이 인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해 구마모토현의 ‘구마몬’에 못지않게 사랑받는 캐릭터가 되길 기대해 본다.



# 동인천은 아프리카 초원이다

아프리카 목공소·철공소 대표 김영수

사진 김보섭 | 글 유동현



흡사 로커(rocker) 같았다. 홍예문 길을 오르내리며 슬쩍슬쩍 봤던 그의 첫인상이다. 뽀뽀머리, 착 붙는 민소매, 시 커먼 선글라스, 팔뚝 위 커다란 문신, 게다가 담배까지 물고 있던 그 모양새는 ‘야생’ 그 자체였다. 그 품새에 놀려 말도 못 붙이고 내부를 둘러보는 등 마는 등 나온 게 두어 번이다. 이번 취재를 위해 그곳을 다시 찾아 그를 대했을 때 그가 아닌 줄 알았다. 페인트로 얼룩진 검은 작업복에 낡은 모자 그리고 빨테 안경을 쓴 그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다.

아프리카 목공소·철공소 대표 김영수(46) 씨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부산 다대포에서 성장했다. 부산해양고에 입학해 3학년 때부터 배를 탔다. 15개월 정도 뱃일을 하고 방황하다가 해병대에 입대했고 제대 후 노가다판에서 일했다. 이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총각무 중매인으로 일하며 집을 장만할 만큼 돈을 모았다. 다른 사업에 눈을 돌렸다가 수익 원을 빚지고 다시 노가다 판을 떠돌았다.

4년 전 동인천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곳에 왔을 때 그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였다. 사회의 온갖 ‘쓴물’은 다 뒤 집어쓰고 냉랭하고 거친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내뿜는 상태였다. 월세 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동인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웬일인지 마음이 점점 편해졌다. 기를 죽이는 큰 빌딩도, 욱박지르는 큰길도 없었다. 무엇보다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안온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옛 축현초교) 위쪽 길가 낡은 상가에 거처를 마련했다. 전동 골 짜기의 키 작은 집들과 인일여고 언덕배기 그리고 멀리 화수동 공장들이 보이는 ‘뷰’가 맘에 들었다. 그는 캠핑하는 셈 치고 짐을 풀었다.

심심해서 이것저것 만들고 있는데 어느 날 아주머니 한 분이 불쑥 들어왔다. “6인용 테이블 하나 만들어줘요.” “여긴 목공소가 아니...” “30만원 줄 테니 하나 만들어줘요.” 목공 일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그였지만 한 달치 방값을 치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덜컥 수락했다. 아프리카(Afrika) 목공소의 시작이었다. 간판으로 ‘아프리카’를 내건 이유는 단 순하다. 그곳에서는 자신과 같은 사람도 몸으로 때우면 쓸모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그 자신만큼이나 상처 받은 그 땅에서 남을 위해 일하다 보면 치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아프리카를 늘 동경해왔다. 간판의 아프리카 철자가 이상하다는 물음에 “K가 멋있잖아요”라며 씩 웃는다. 사실은 이메일 주소로 아프리카(Africa)를 쓰 려고 했는데 이미 사용 중이라 살짝 바꾼 것이라다.

아프리카는 언제부턴가 아이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인근 학교 학생들은 물론 지나가던 아이들이 부담 없이 들어와 합 판 조각에 그림을 그리며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편하게 ‘노는 공간’이 되었다. 매년 핼러윈데이에는 ‘구미 호데이 여우야 놀자’라는 파티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등 함께 놀아준 것뿐인데,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제 김 대표 를 아이들의 멘토로 모셔간다. 꾸물꾸물문화학교 동네예술대학의 목공 수업, 인천문화재단의 동네방네 아지트 활동 등 다양한 재능 나눔을 하면서 지역 문화계와도 끈끈한 사이가 되었다.

몇 년 전 그는 지인의 소개로 진짜 아프리카와 인연이 닿았다. ‘아프리카가 아프리카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지난해 7월 아트플랫폼 칠통마당 갤러리 디딤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수익금 전액을 짐바브웨 아트센터에 기부했다. 어쩌면 그 는 이미 아프리카에 가있는지도 모른다. 동인천이 그를 ‘사람’ 만들었다. 그것도 ‘착한 사람’ ‘멋진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에게 동인천은 아프리카의 푸른 초원이다.





## CULTURECALENDAR

03

01

## 제99회 삼일절 경축식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전석 초대  
☎ 440-2527

가족 뮤지컬  
‘벌거벗은 임금님’

인천 스퀘어원 4층 문화홀  
오후 2시, 4시  
전석 1만원(‘굿모닝인천’ 소지 시  
1,000원 할인)  
☎ 010-6667-4677

03

임동혁의 피아노 리사이틀  
‘그의 슈베르트’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후 7시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460-0560

## 어린이뮤지컬 ‘소피루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월 4일까지 공연  
3일/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4일/오후 2시, 4시 30분  
R석 5만5,000원, S석 4만4,000원  
☎ 1588-2341

제36회 인천연극제  
‘그곳에 서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원  
☎ 862-9683

03

어린이뮤지컬  
‘시크릿 쥬쥬 -  
시크릿플라워 댄스파티’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3월 4일까지 공연  
3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4일/ 오전 11시, 오후 2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 070-7204-7000

## 바다탐험대 옥토넷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3월 4일까지 공연  
3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4일/ 오전 11시, 오후 2시  
R석 정상가 5만원  
(예매가 2만5,000원),  
S석 정상가 4만원  
(예매가 2만2,000원)  
☎ 010-7650-9996

04

선데이 콘서트-  
김나연바洛克바이올린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06

제36회 인천연극제  
‘위대한 거짓말’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3월 8일까지 공연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원  
☎ 862-9683

영상으로 만나는  
SAC ON SCREEN  
‘오페라 마술피리’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전 9시 30분, 오후 2시  
전석 무료(전화예매 후 선착순 입장)  
☎ 460-0560

08

## 박강수 인천공연 2018

학산소극장  
오후 7시 30분  
전석 4만5,000원  
☎ 02-322-4241

09

## 마틴 슈메딩 오르간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원  
☎ 289-4275



10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캐리X엘리 러브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월 11일까지 공연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R석 5만5,000원, S석 4만4,000원  
☎ 1566-6551

부평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 청소년을 위한 희망 콘서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6시  
R석 1만원, S석 5,000원  
☎ 209-0788

제36회 인천연극제  
‘오두석의 귀가’

인천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전석 2만원  
☎ 862-9683

11

선데이 콘서트 -  
최병호 바이올린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13

제36회 인천연극제  
‘느낌 극락같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원  
☎ 862-9683

14

러브애크츄얼리 그 후 이야기...  
연극 ‘이프온리’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3월 18일까지 공연  
14일/ 오후 4시 30분, 8시  
15일, 16일/ 오후 8시  
17일/ 오후 3시, 6시  
18일/ 오후 2시, 5시  
전석 3만원  
(2월 28일까지 예매 시  
1층 1만2,000원 2층 1만원)  
☎ 1600-0316

인천시설공단  
창립 16주년 기념 축하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전석 무료  
☎ 456-2086

15

제36회 인천연극제  
‘신포동 장미마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원  
☎ 862-9683

16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71회  
정기연주회 ‘드보르작’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000원  
☎ 1588-2341



17

인천시민과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해피투게더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원  
☎ 888-0807

앤서니 브라운 - 체험뮤지컬  
‘신비한 놀이터’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3월 18일까지 공연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월리석 5만원, 별령코석 4만원  
☎ 043-271-1887

## 가족 뮤지컬 ‘신데렐라’

계양문화회관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5,000원  
☎ 010-2407-7823

18

송도청소년교향악단 &  
청라청소년교향악단  
제14회 정기연주회

인천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전석 1만원  
☎ 819-0505

선데이 콘서트-  
김지혜 피아노 콘서트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21

2018 커피콘서트  
리코디스트 염은초와  
기타리스트 이성우가 들려주는  
‘달콤한 클래식’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000원  
☎ 1588-2341

## 가족뮤지컬 ‘겨울이야기’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전 10시 15분, 11시 20분  
일반 1만원, 단체 6,000원  
☎ 02-387-9411

22

인천시립합창단  
제159회 정기연주회  
‘라흐마니노프의  
All-Night Vigil Opus 37’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7,000원  
☎ 1588-2341

24

## 영동발랄 공순이 ‘엄마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월 25일까지 공연  
오전 11시, 오후 2시  
R석 5만5,000원, S석 4만4,000원  
☎ 1566-6551

## 스탠딩에그 &amp; 장덕철 콘서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7시  
R석 7만7,000원, S석 6만6,000원  
☎ 010-9058-9234



## 가족뮤지컬 ‘무지개물고기’

인천계양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3만원  
☎ 010-2126-2019

25

## 제21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원  
☎ 873-7772

선데이 콘서트 -  
이예원 오르간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28

마티네콘서트 마실 -  
기타리스트 권정구의  
바람이 전하는 말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3,000원 (전화예매 후 선착순 입장)  
☎ 460-0560

29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실내악으로 봄을 물들이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5,000원  
☎ 1588-2341

어쿠스틱 앙상블  
‘인천으로 온 재비’ 콘서트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전석 무료  
3월 15일 오전 9시부터 인천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ilec.go.kr)에서 선착  
순 접수  
☎ 899-1517

30

2018 클래식시리즈 II  
리처드 용재오닐 리사이틀  
‘DUO’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1588-2341

31

## 어린이뮤지컬 ‘신비아파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4월 1일까지 공연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R석 5만5,000원, S석 4만5,000원  
☎ 1688-6675

## 가족뮤지컬 ‘어린이 캣’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전11시, 오후2시, 4시  
전석 2만원(예매 시 1만4,000원)  
☎ 1588-6212

## 이달의 展

인천독립 및 현충시설 작품전  
2월 27일~3월 5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제8회 숨드로잉전  
2월 27일~3월 5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18회 대한민국제물포서화대전  
3월 6일~3월 12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미추홀 전시실

개인전 송현미, 풀이 이은 시간  
3월 6일~3월 15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개인전 김선형, ANIMA(영혼)  
3월 6일~3월 15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제6회 대한민국나라사랑미술대전  
3월 13일~3월 19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 전시실

인천-123  
3월 13일~3월 19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사진전 이충규, 골목길에 피어나는 그리움  
3월 20일~3월 29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정동준, 공간 이전의 기록  
3월 20일~3월 29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제30회 인천서예대전 및 초대작가전  
3월 20일~3월 26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 전시실

차기울 개인전  
‘순환의 여행 / 방주와 강목 사이’  
2월 27일~3월 27일  
우리미술관 전시관

우리마을 아트장터  
3월 31일~4월 1일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 반갑다 봄바람! 봄처럼 따뜻한 3월의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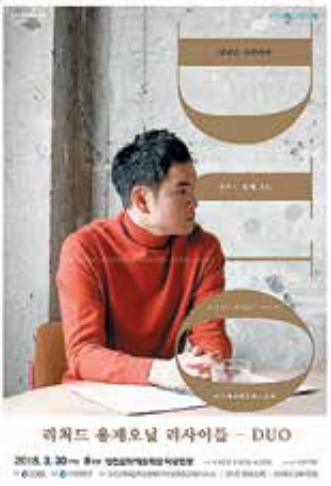
유난히 추웠던 겨울의 끝을 알리는 3월.  
추운 겨울이 지나고 기대와 의욕이 충만한 봄이 왔습니다.  
리처드 용재오닐의 비올라 공연부터 임동혁의 피아노 리사이틀까지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감동적인 명품 공연을 소개합니다.

## 마법 같은 현의 선율

리처드 용재오닐 리사이틀 ‘DUO’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오닐이 ‘DUO’ 라는 타이틀을  
걸고 음악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동료들과 함께 인천에  
서 공연합니다.  
첼리스트 문태국,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비올리스트  
이수민과 함께하는 리처드 용재오닐의 연주는 따뜻한  
봄날,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 1588-2341  
일시 3월 30일 오후 8시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보헤미안의 아름다움과 서정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71회 정기연주회 ‘드보르작’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선정한 3월의 작곡가는 드보르작입니다.  
이번 공연은 강남대학교 유광 교수의 지휘로 체코의 아름다움  
을 노래한 드보르작의 작품을 연주합니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할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은 그의 고향 체코의 보헤미안적 풍경과  
선율이 잘 반영된 명곡입니다.  
또한 호른니스트 이석준과 협연해 펼칠 R. 슈트라우스 호른  
협주곡 1번까지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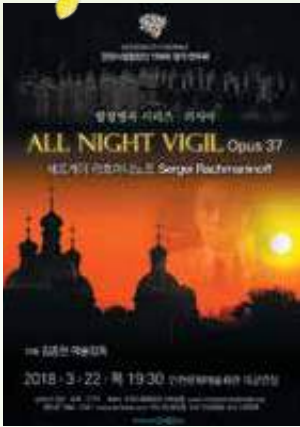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 1588-2341  
일시 3월 16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000원

## 따스한 봄날에 퍼지는 낭만적인 피아노 선율

임동혁의 피아노 리사이틀 ‘그의 슈베르트’

세계적인 콩쿠르를 석권한 클래식 스타, 임동혁이 슈베르트와 함께 인  
천을 찾아옵니다. 군더더기 없는 테크닉과 다양한 음색으로 극찬 받는  
임동혁의 연주는 특히 낭만주의 작품에서 가장 빛을 발합니다. 이번 공  
연은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슈베르트의 곡들을 임동혁의  
아름다운 연주로 만나 볼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예매 ☎ 460-0560  
일시 3월 3일 오후 7시  
장소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티켓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봄을 알리는 천상의 소리

인천시립합창단 제159회 정기연주회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 All NIGHT VIGIL Opus 37

인천시립합창단이 아름다운 합창으로 2018년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할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All Night Vigil Op.37입니다. 폭넓은  
음역과 깊은 음악성이 요구되는 이 곡을 통해 인천시립합창단이 가진 소리  
의 스펙트럼과 순도 높은 합창을 즐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 1588-2341  
일시 3월 22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7,000원



## 커피와 예술의 향기 가득 2018 커피콘서트

리코디스트 염은초와 기타리스트 이성우가 들려주는 ‘달콤한 클래식’

2018년에도 어김없이 인천의 커피콘서트가 시작됩니다. 갓 뽑은 신선한 커피와  
순도 높은 공연이 어우러지는 커피콘서트는 한 달에 한 번, 자칫 지루해질 일상  
에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리코더계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염은초와 기타리스트 이성우가 다양한 장르와  
레퍼토리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드립니다.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 1588-2341  
일시 3월 21일 오후 2시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1만5,000원



# NEWS BRIEF

## ‘재정 정상 단체’ 전환 확정...‘희망 인천시대’ 열렸다



우리 시가 ‘재정 위기 주의’ 꼬리표를 떼고 ‘재정 정상’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인천시에 대한 주의등급 해제를 결정하고, 13일 시에 공식 통보했다. 시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채무비율이 2분기 연속 재정 위기 주의 단체 해제기준인 25% 미만을 충족했다. 그동안 시는 2018년 재정 정상 단체 전환을 목표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기획관실을 신설, 누락 세원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시간외수당, 시장과 국장의 업무추진비를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맸고 행사·축제 경비는 반으로 축소했다. 시는 그동안 세수(稅收) 확충과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2015년 이래 부채 3조7,000억원을 갚았다. 정부가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는 최근 4년간 1조8,700억원으로 이전 4년간 합계액보다 약 1조 원이 늘어났다. 전국의 차량 리스·렌트 회사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통해 회사 등록지

를 인천으로 유치, 최근 4년간 1조1,500억원의 등록세를 확보하기도 했다. 결국 시는 지난 2014년 13조2,000억원에 달했던 부채를 3조4,000억원가량 줄였으며 채무비율 또한 지난해 1분기 31.1%, 2분기 24.1%, 3분기 22.9%, 4분기 21.9%까지 낮췄다. 어려운 재정세 시달리던 시는 이제는 재정 성과를 시민 행복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의 : 시 정책기획실 ☎ 440-2383

## 국제기구 직업체험 프로그램 인기



방향을 맞아 우리 시가 실시한 지역 청년 ‘국제기구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시와 인천 소재 국제기구, 지역 대학이 협력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역 대학에서 영어에 능통한 우수인재를 추천받고, 국제기구에서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국제기구 취업 열망하는 청년들이 많은 점에 착안, 2016년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년 70여 학생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시는 세계적인 국제기구 중심도시를 지향하며 2006년부터 국제기구를 적극 유치해 현재 녹색기후기금(GCF)을 비롯한 15개 국제기구가 인천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3244

## 지역 상품권의 변신 ‘인처너 카드’ 도입

우리 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자 상품권 형태의 ‘인처너(INCHEONER) 카드’를 도입한다. 시는 2월 28일까지 인처너 카드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으며, 3월 6일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열어 운영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 모집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말기를 구축해 시범 운영한 뒤 추진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선불 지급 수단인 인처너 카드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명식 카드와 다른 지역 주민도 쓸 수 있는 정액형 카드로 발급될 예정이며,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집적회로(IC) 카드 형태로 만든다. 문의 : 시 소상공인정책과 ☎ 440-4212

## ‘인천형 공감복지’ 공공행정 우수 브랜드 선정



우리 시의 ‘인천형 공감복지’가 최고 브랜드로 선정됐다. 시는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18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서 인천형 공감복지가 공공행정 서비스 분야 공감복지도시 부문에 선정됐다. 인천형 공감복지 대표 사업으로는 SOS 복지안전벨트, 인천손은 약속 의료 프로젝트, 다문화가족 자녀 발달검사 지원사업,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뉴라 여성 취업률! 사업, I-Mom 지원사업, I-조아,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구축 사업, 장애인 자세유지구 보급사업, 3천 가정 사랑 연약 사업 등이 있다. 문의 : 시 공감복지과 ☎ 440-3462

## 청정 무상급식 공동구매 업체 200개소로 확대

우리 시가 청정 무상급식을 위해 어린이집 급식 재료 공동구매 업체를 현행 15개소에서 200여 개소로 늘려 운영한다.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는 지난 2011년부터 각 군·구가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 업체는 대기업 4개소, 중견기업 1개소, 중소기업 10개소 등이다. 그동안 어린이집 공동구매 제도가

원장의 자율적 참여로 운영됐고 정부가 급식비와 관련한 별도의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은 탓에 지역 업체 등 소규모 업체는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가 올해 1월부터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청정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문의 : 시 출산보육과 ☎ 440-2892

## 태양광발전 사업자 저리 융자지원

우리 시는 민간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장기저리로 융자를 실시한다. 설비용량 300kw 이하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리 1.8%(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저금리로 발전시설 공사의 50% 이내, 최대 2억 원 한도로 총 10억원을 지원한다. 태양광발전 사업자 융자 사업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8개 발전 사업자에게 26억 원을 지원했다. 시는 초기 설치비 자금 지원을 통해 태양광발전 설비 수요 확대와 신

재생에너지 보급의 민간 참여를 유도해왔다. 융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 시 에너지정책과 ☎ 440-4353



## 아이들 안심하고 맡기세요

우리 시는 관내 9개 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19일 ‘2018년 제1기 아이돌보미 신규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의 가정에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해 운영된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 440-2872

## 인천지역 공시지가, 4% 상승

인천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4.07%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부평동 부개동 일대를 중심으로 6.8% 올라 가장 높았고, 남동구가 원도심의 오피스텔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5.9% 상승해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표준이 되는 땅값으로, 4% 상승은 지난해 상승률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문의 : 시 토지정보과 ☎ 440-4562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확대



우리 시가 전국 처음으로 스마트 공장 실무교육 및 진단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한다. 스마트공장은 설계·개발, 제조, 유통·물류 등 생산 전체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지능형 공장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표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하는 업체에 국비 5,000만원, 시비 2,000만원 등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200여 개가 있으며 인천에는 151개가 있다. 시는 올해 사업비 20억 원을 활용해 스마트공장 수를 100개 더 늘리고, 2022년까지는 인천 전체 공장의 10% 수준에 맞춰 1,000개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예정이다.

문의 : 시 산업진흥과 ☎ 440-4287

7호선 청라 연장 관련  
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우리 시는 지난 9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기본계획 용역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교통현황 및 장래 교통수요 예측, 노선 및 정거장 등 대안 분석을 통한 건설·운영 계획,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자금조달 방안, 건설 중 도로교통 대책 등을 검토한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만든다. 한편 시는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2021년 착공,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 시 철도와 ☎ 440-3912

국제해양·안전대전  
6월 송도서 개최

우리 시와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리드케이웨어가 공동 주관하는 ‘2018 국제해양·안전대전’이 오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올해 4회째인 이번 행사부터는 기존 ‘해양·안전장비전’에 조선분야를 추가해 ‘중소 조선 및 워크보트 산업전’을 동시에 연다. 특히 안전·레저관, 특수장비관 등 6개 관으로 구성된 해양·안전장비도 전시되며 중소 조선 및 워크보트, 친환경 선박설비 및 선박지원관, 여객·항만 소요장비 및 비품 등이 확대 출품될 예정이다.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를 비롯해 제3회 국제수상안전 심포지엄 등 부대행사도 열린다.

문의 : 시 마이스산업과 ☎ 440-1524

닥터 헬기 서해 최북단  
백령도까지 운행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 헬기가 지난 2월 26일부터 서해 최북단 백령도까지 운행된다. 닥터헬기는 일명 ‘하늘 위의 응급실’로 불리며, 첨단 의료 장비와 전문 치료약품 탑재는 물론이고 응급의학 전문의가 탑승하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다. 우리 시는 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난 2011년도부터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가천대 길 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 헬기)를 통해 원거리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의 : 시 보건정책과 ☎ 440-2734

中 청두에 인천제품 전시판매점  
6월 개실

중국 쓰촨성 청두(成都)에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인천관이 생긴다. 우리 시는 포스코대우,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올 6월까지 생활소비재 전시판매 중심 ‘청두2호점’을 세운다. 청두2호점은 이우1호점에 이어 중국 내 인천시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위한 두 번째 전시판매점이다. 매장 면적 230㎡ 규모로 인천 중소기업 20개 180여 품목과 포스코대우 협력사 20개사 등 모두 40여 개 중소기업이 입점한다. 청두시는 인구 1,600만 명의 중국 4위 도시로, 연 12~20%의 높은 소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서부 내륙 도시다.

문의 : 시 산업진흥과 ☎ 440-4282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 보훈대상자 80% 감면

임산부와 국가유공자 등의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율이 확대된다. 우리 시는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5·18 민주유공자, 임산부 등의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표했다.

이번 조례에 따라 각종 보훈 대상자의 주차장 감면율은 종전 50%에서 80%로 확대되며 임산부는 요금 전액이 감면된다. 임산부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의 증명 자료를 제시하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시 교통관리과 ☎ 440-3923

2018 미추홀명장 신청 접수

우리 시는 지역산업현장의 최고 숙련기술인으로서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묵묵히 애써온 애인(愛仁)의 주역을 발굴하기 위해 ‘2018년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을 선정한다. 올해부터 대한민국명장 직종이 37개 분야 97개 직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미추홀명장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공예분야를 제외한 36개 분야 90개 직종을 기본틀로 잡았다. 미추홀명장으로 선정되면 미추홀명장 증서와 명패가 수여되고 5년 동안 매년 100만원의 기술 장려금이 지원된다. 인천시 명장의 전당에 등재도 된다.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시 일자리정책과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시 일자리경제과 ☎ 440-4242

면접 정장 무료로 빌리세요

우리 시는 청년 취업을 응원하기 위해 면접 정장 대여 비용을 지원한다. 인천에 거주하는 18~34세(1985~2001년생) 청년 구직자라면 대여료가 5만5,000원 이하인 정장을 연 3회까지 빌릴 수 있다. 희망자는 시와 협약을 맺은 정장 대여점 5곳 중 1곳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보여주고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면접에 필요한 정장을 빌릴 수

신기시장, ‘2018 해외홍보  
마케팅 전통시장’에 선정

전통시장인 신기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8 해외홍보 마케팅 전통시장’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신기시장은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에 참여 자격을 갖고, 상품홍보나 관광객을 유치해 시장 상품 판매는 물론이고 국제적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시는 신기시장을 2013년부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 있다. 시장 전용 화폐(신기통보) 발행을 비롯해 시장 캐릭터 개발, 전통체험관 운영, 각종 이벤트 등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현재는 2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지역선도형 글로벌 도약시장’으로 육성 중이다.

문의 : 시 소상공인정책과 ☎ 440-4222



있다. 시는 월별로 대여 비용을 정산해 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 시 창업지원과 ☎ 440-4162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 공모 사업설명회 개최

우리 시가 지역 내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 사업설명회가 지난 2월 12일 오후 2시 남구 주안동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카페, 음악클럽, 갤러리, 공방 등의 공간을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2022년까지 5년간 1,000개의 문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행정기관이 대규모 예산을 들여 직접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갤러리·북카페·음악클럽·

서점 등을 문화공간으로 꾸며 일반 시민과 공유하는 방식의 문화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문의 : 시 문화예술과 ☎ 440-4012





IFEZ NEWS

워터프런트 순항...교통영향평가 조건부 통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7일 워터프런트 조성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크게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해양생태도시 조성, 유수지 및 수문설치를 통한 홍수피

해 방지, 해수유입 및 순환을 통한 수질개선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교통영향평가심의회는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변화를 예측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교통망 및 적정차로 수, 대지의 진출입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 신호 및 표지판 등 교통관련 안전시설 등을 결정하게 된다.

청라국제도시 GRT 개통

인천경제청은 지난 2월 5일 청라국제도시에서 유도고속차량(GRT·Guided Rapid Transit)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행에 들어갔다. GRT는 버스와 전철의 장점을 취한 차량으로, 버스처럼 고무 차바퀴가 달렸지만 중앙분리대 옆에 있는 너비 2.5m의 전용 주행로를 달린다. 이날 개통한 청라 GRT 사업은 1단계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을 잇는 2개 노선에 천연가스(CNG) 저상버스 14대가 운행한다. 오는 4월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차체에 차량 바퀴가 각각 움직여 회전반경을 크게 줄인 신형 차량인 바이모달트램 4대가 추가로 투입된다.

송도에 일본 아이리스오야마 제조시설 착공

글로벌 생활용품 제조 기업인 일본 아이리스오야마의 소형 가전 및 생활용품 제조시설이 공사에 들어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월 12일 송도 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아이리스오야마 현장 부지에서 아이리스코리아(주) 송도 사업장 착공식을 가졌다. 아이리스오야마는 송도에 5,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부지 2만7,619㎡ 규모의 소형 가전 및 생활용품 제조시설을 연말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아이리스오야마는 전 세계 26개의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연간 매출액이 4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소형가전과 생활용품, LED 분야에서 일본 최고의 기업이다.

IFEZ, 항공기업 투자 유치 올인

인천경제청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 분야 박람회인 ‘싱가포르 항공·방산 박람회 2018’에 참가해 항공기업 투자유치에 나섰다. 김진용 청장 등 인천경제청 대표단 4명은 지난 2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이번 박람회에 참가해 투자유치 ‘IR’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세계 48개국이 참가해 1,040개의 부스가 설치됐으며, 143개국의 4만8,000여

명이 찾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한편 대표단은 박람회에서 인천국제공항 항공 정비특화단지과 영종하늘도시 항공정비(MRO) 기업과 연계한 투자유치를 모색했다. 또 싱가포르 최대 항공 MRO 단지인 셀레타(Seletar Aerospace Park)를 시찰하고, 셀레타를 개발·운영하는 싱가포르 국영업체 등을 방문했다.

영종도 랑룬 다이아몬드시티 사업 본격 궤도



영종도 미단시트에 호텔·콘도·쇼핑시설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가 조성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월 8일(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미단시지 부지 가운데 바다를 접한 7만6,000㎡를 중국 대형 부동산개발 회사인 ‘랑룬그룹(朗潤·LONG RUNN)’에 매각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격은 약 871억원이다.

랑룬 측은 미단시지 내 7만6,000㎡ 터에 약 1조원을 투자해 특급호텔·레지던스호텔·콘도·대형 쇼핑시설 등을 갖춘 ‘랑룬 다이아몬드 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랑룬 그룹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인접 부지 19만9,000㎡를 추가로 매입, 총사업비 4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미단시지는 중구 운북동 일대 271만㎡에 조성 중인 도시로 관광·레저·주거·상업이 어우러진 융합도시를 목표로 한다.

IMAGE NEWS

1919년 3월, 인천에 장이 서는 날



#장터엔 사고팔 물건 대신, #민족의 숨겨온 소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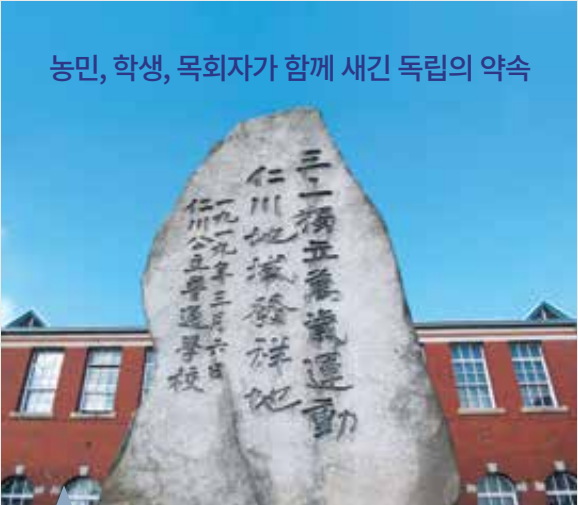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강화 장터, 그리고 #계양 황어장터엔 #민중이 토해내는 #설움과 간절한 열망이 가득 찼습니다.

02

농민, 학생, 목회자가 함께 새긴 독립의 약속



#1907년 민족자본으로 세운 #인천창영초등학교. #열 살 소년들도 동맹 휴학을 하고 #거리로 나와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03

부평공원 소녀상이 기억하는 그 시절의 꿈



#3월의 함성이 이룬 #송고한 역사는 #민족의 꿈을 소중히 보듬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04



# COUNCIL NEWS

## 의정활동 우수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인천시의회는 지난 2월 20일 의회 접견실에서 전국 시·도회의의장협의회 주관 제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전국 시·도회의의장협의회는 최근 이영훈, 허준, 차준택, 최용덕, 박병만 등 5명의 의원을 우수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수상한 의원들은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준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시민을 위한 정치, 지역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해 열린 의회,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4차 산업혁명 촉진 위원회 출범

인천시는 지난 2월 20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황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246회 임시회 때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이날 공포됐다. 조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기본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 개교 예정학교 방문 준비사항 점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3월 개교 예정인 인천주안초등학교, 인천청인학교, 인천예송초등학교를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들은 시설공사 현황, 학생 수용의 적정성, 통학로 확보, 학교급식 준비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교준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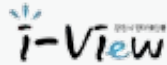
## 영흥화력발전본부 현장방문 의정활동 실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월 2일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와 주민 집회현장을 방문,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관련 시설을 직접 살피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 총 6기를 운영 중이며, 전력생산에 매일 5만여의 유연탄을 사용하고 석탄재 등 폐기물을 배출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또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 사업장 관계자의 면담을 통해 공영기업으로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인천을 누빌 ‘객원기자’를 찾습니다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매주 2회 이메일 서비스



온라인 시대, 시민과 소통하는 매체, 인터넷신문 ‘i-View’를 아세요? 2005년 5월 창간한 인천시 공식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메일로 독자에게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호마다 인천의 숨은 이야기, 주요정책, 지역소식, 문화, 인천사람들 이야기 등을 담아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i-View’는 시민들이 객원기자로 참여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매체입니다. 그동안 객원기자들이 발굴한 우수한 콘텐츠는 방송, 신문, 지역커뮤니티 등에 재인용되어 인천을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에 시는 인터넷신문 ‘i-View’ 콘텐츠 제작에 중추적 역할을 할 객원기자를 모집합니다. 인천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객원기자로 선발되면 인천시 주요 정책 현장, 행사 등에 참여해 취재활동을 하게 됩니다. 객원기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자에게는 시장상 추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천에 대한 열정과 무한한 사랑을 가진 재능 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객원기자 모집]

- 모집 기간** 3월 2일(금)~3월 20일(화)까지
- 모집 인원** 10명
- 지원 자격** 인천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갖고 취재, 사진촬영, 기사작성이 가능한 분
- 선발 방법** 서류심사 및 면담 후 개별통보
- 제출 서류** 지원서 1부 ※ 지원서 양식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활동 혜택**
  - 취재 활동에 필요한 기자 명함 제공
  - 채택된 기사에 대해 원고료 지급
- 신청 방법** 지원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송부(yona@korea.kr)
- 시 인터넷신문 사이트** www.enews.incheon.go.kr
- 문의** 시 브랜드담당관실 홍보콘텐츠팀 ☎ 440-8302



##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 의회사무처 ☎ 440-6137~8  
홈페이지 : www.icouncil.go.kr







## INFO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보 표기 -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 2018년도 제2기 여성 복지관 수강생 모집

인천시 여성복지관에서 다양한 강좌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 이상 인천 시민이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인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강좌** : 한국사 지도사, 스크래치 코딩 자격증 등 다양한 특강

**신청 기간**

전문·실용&창업 과정 : 3월 22일~4월 16일, 문화 아카데미·특강 : 3월 23일~4월 16일

**교육 기간** : 4월 9일~6월 23일(3개월 과정)

**신청 방법** : 인터넷 선착순 접수(교육비 납부자에 한함)

**문의** : 시 여성복지관 교육취업팀 ㉠440-6540 ㉡women-center.incheon.go.kr/index.do

###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가입 안내

주택연금이 행복한 노후를 책임집니다.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2018년 3월부터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이 바뀌니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 부부 중 1인이 만 60세 이상

**대상 주택** :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 ㉠420-2139, 2159

### 2018년도 인천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맞춰 오는 3월 말까지 시 관련부서 및 군·구와 함께 관내 재난 안전 시설물 전반에 대해 안전 대진단을 실시합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 활동입니다. 주변 생활 속에서 발견된 안전 위협요소를 ‘안전 신문고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전 신문고앱’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 2월 5일~3월 30일

**문의** : ㉠044-205-4223~4 ㉡www.safetyreport.go.kr



### 지역 예술가·예술단체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안내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지역에서 예술하기’라는 부제를 걸고 음악과 관련된 예술가 및 예술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좀 더 가까이에서 듣고 토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지역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 3월 5일~26일, 매주 월요일 오후 3시~6시

**장소** :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대상** : 예술가, 예술단체 구성원, 지역문화예술기관 종사자

**참가비** : 무료(총 4회)

**문의** : 부평구문화재단 ㉠500-2065



### 신혼부부 전용 구입, 전세자금 대출상품 안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나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과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상품은 행복한 신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LH마이홈 상담센터 ㉠1600-1004 ㉡nhuf.molit.go.kr

### 인천인력개발원 취업 연계 교육생 모집 안내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에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체와 연계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 후 바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전액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며 매월 교육수당까지 지급되는 좋은 기회이니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상** : 15세 이상 누구나

**신청 방법** : 인천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문의** : 인천인력개발원 ㉠810-6520 ㉡ic.korchamhrd.net

### 제3회 평생교육사 지도자 역량강화교육 안내

인천평생교육사협회에는 평생학습 실무자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술, 태도와 관련한 전문능력 함양과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3회 평생교육사 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합니다.

**교육 기간** : 4월 4일~25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교육 대상** : 인천평생교육사협회 회원, 인천시민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신청 기간** : 3월 1일~4월 1일 오후 6시까지(선착순 마감)

**수강료** : 협회 정회원 2만원, 비회원 4만원(재료 및 간식비 포함)

**문의** : 인천평생교육사협회 ㉠010-4691-9396, 010-6288-2625

### 어린이도서연구회 신입회원 모집

어린이도서연구회 인천지부 계양지회에서는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 일시** : 3월 30일(금), 4월 10일(화), 12일(목) 오전 10시~12시

**장소** : 계양도서관 2층, 북구도서관

**모집 기간** : ~3월 30일까지

**대상** : 어린이 책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교육비** : 2만원

**문의** : 어린이도서연구회 ㉠010-8754-7328, 010-5390-4486



### 인천 시민 사이버교육센터 무료 온라인 교육 안내

인천 시민 사이버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외국어 강좌와 자격증 시험준비를 위한 강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85개 과정에 달하는 무료강좌들을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대상 : 인천 시민 누구나    문의 : 인천 시민 사이버교육센터 ☎032-440-7686~7 ㉠www.cyber.incheon.kr

### 인천 크루즈 서포터즈 모집 안내

인천관광공사에서 대한민국 최초 11만톤급 크루즈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는 인천 크루즈의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2인 1조로 구성된 30팀을 선발하며 선발된 서포터즈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을 증정합니다. 댓글 미션과 인천 크루즈 관광 상품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선발되는 인천 크루즈 서포터즈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 2월 12일~3월 18일

문의 : 인천관광공사 ☎02-6000-4470 ㉠www.incheoncruise.com



### ‘젊은 영웅 찾습니다’

#### 인천소방본부 192명 채용 안내

인천소방본부는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192명을 올해 신규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는 일반 소방·구조·구급·건축·화학·통신 등이며, 응시가능 연령은 공개경쟁채용 18~40세, 경력경쟁채용 20~40세(항공조종은 23~45세)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기간 : 3월 5일~8일

문의 : 인천소방본부 ☎870-3012 ㉠gosi.incheon.go.kr

### 난타지도사 자격 과정(3급)

인천평생교육사협회는 난타지도사 자격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기간 : 4월~7월, 총 4개월 과정, 4월 4일 개강

교육장 :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퓨전국악단 ‘구름’교육장

교육대상 및 인원 : 협회회원 및 인천시민 누구나 20명 이내

교육비 : 총 28만원

교육 강사 : 김정화 교수(인천무형문화재 제9호 대금장 이수자)

문의 : 인천평생교육사협회 ☎010-4691-9396, 010-6288-2625

### 케이슨24 ‘송밤 나이트 라이브 콘서트’ 안내

송도의 핫 플레이스인 케이슨24에서 매주 금, 토요일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송밤 나이트 라이브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음악 공연을 진행합니다. 매주 다양한 버스커 공연과 청년 뮤지션 팀 어쿠스틱 재즈 4인조 밴드의 감미로운 재즈의 선율도 감상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매주 금·토요일

문의 : 케이슨24 ☎832-3024 ㉠www.caisson24.com



### 2018년도 인천시 도서관 상반기 교육·문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우리 시 도서관의 상반기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도서관명	프로그램명	내용	일시	대상	문의
미추홀 도서관	‘레오, 나의 유령 친구’ 원화 전시회	원화 18점 전시	3월 3일~29일	전체	☎440-6665
	미추홀 터 전시	책의 도시 인천, 책가도를 만나다	3월 6일~25일	전체	☎440-6667
	재능 나눔 특강 - 우리 아이 책상 정리하기	집중력 높이는 우리 아이 책상 정리 Tip	3월 7일 오전 10시~낮 12시	성인	☎440-6665
	상반기 정규강좌	동화와 함께하는 피카소 등 11강좌 운영	3월 12일~6월 20일	전체	☎440-6665
	다문화체험교실 ‘런던! 영국’	다문화 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나라별 문화 소개 및 전통놀이 체험	3월 24일 오후 2시~3시 30분	초등학생 및 학부모	☎440-6643
	‘우리 함께 읽어요’ 2018 미추홀 북	2018 책 읽는 인천 독서운동	3월~12월	전체	☎440-6663
	미추홀 스쿨링	도서관 견학, 이용방법 및 책 읽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미취학 아동	☎440-6647
	주말 영화 상영	주말 영화 상영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시	전체	☎440-6642
청라호수 도서관	책 읽어 주는 미술사	책 속 주인공이 되어 독서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느껴보는 책 공연	3월 17일 오후 2시~3시	5세 이상 (100명)	☎563-8125
	호수공원 숲 체험 ‘무얼 찾을까? Spring!’	숲 해설가와 함께 호수공원에서 생태놀이, 자연물 만들기 등 숲 체험	3월 31일 오전 10시~낮 12시	초등1~3학년 (12명)	☎563-8125
	상반기 정규강좌	연령별 다양한 강좌 준비	3월 12일~6월 4일	연령별	☎563-8126
	‘나비를 잡는 아버지’ 원화 전시회	서정적인 분위기에 감동과 끈끈한 정이 묻어나는 그림책 원화 전시	3월 5일~28일	전체	☎563-8125
	영화 상영(상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영화 상영을 통한 건전한 여가 지원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전체	☎563-8127
청라국제 도서관	원화 전시회	‘내 친구의 다리를 돌려줘’(뜨인돌) 원화 전시와 관람자 한 줄 감상평 접수	3월 2일~31일	전체	☎562-1675
	재능기부 영어 스토리텔링(상시)	인천외고, 청라달트 학생들이 진행하는 그림동화 영어 스토리텔링과 책 놀이	3월 10일, 24일 오전 10시~11시	만 6~8세	☎562-1675
	상반기 정규강좌	연령별 다양한 강좌 준비	3월 13일~5월 17일	연령별	☎562-1675
영종하늘 도서관	상반기 정규강좌	연령별 다양한 강좌 준비	3월 5일~5월 24일	연령별	☎746-9137
	‘커졌다’ 원화 전시회	‘커졌다’ 원화 20점 전시	3월 3일~27일	전체	☎746-9139
	토요 영화 상영(상시)	토요 영화 상영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전체	☎746-9038
송도 국제기구 도서관	화요 시네마(상시)	화요 영화 테마 상영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전체	☎851-6651
	문화가 있는 날 ‘두배로 데이’	대출권수를 5권에서 10권으로 2배로 확대	매월 마지막 수요일	전체	☎851-6651





## 아이 는 행복 입 니 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을 나눕니다.  
300만 인천시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성장해 나갈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김규린(여아)  
2017년 2월 6일생·연수구

부모의 바람  
하루하루가 사랑스러운 규린아~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주렴.  
민간 어린이집은 대부분 오후 6시에 끝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빠가 육아에 동참하  
고 엄마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김시아(여아)  
2017년 5월 17일생·남구

부모의 바람  
첫아이를 낳은 뒤, 오랜 기다림 속에 태어난  
둘째입니다. 우리 시아, 건강하고 늘 지금  
처럼 행복하자.  
직업체험이나 문화체험을 위해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인  
천에 아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공간이 있었  
으면 합니다.



조윤(남아)  
2016년 10월 4일생·부평구

부모의 바람  
매일 아침 할머니 댁으로 가는 우리 윤이, 울지 않고  
씩씩하게 잘 지내줘서 고맙고 사랑해!  
육아휴직 후 맡길 어린이집이 없어 시부모님에게  
부탁드리고 있어요.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 잠깐!!

우리 시는 ‘인천둥이’의 탄생을, 인천시민 모두가 축하하고 응원하는 친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8년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쌍생아 이상 출생아는 각각 지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90일 이내)

문의 : 시 출산보육과 ☎440-3418, 군·구 출산관련 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아기와 함께 찍은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나 아이의 귀엽고 재미있는 일상을 찍어 보내주세요.

사진과 함께 ‘아기 이름, 탄생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인천에서 성장할 아이에게 바라는 내용 및 인천시에 바라는 내용’을 함께 적어서  
메일(goodvoice@korea.kr)로 보내주시면 ‘굿모닝인천’에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아기는 출생 후~ 24개월까지 해당됩니다.)

문의 : 시 브랜드담당관실 ☎440-8304

## 브랜드, 철학을 팔다 무인양품(MUJI)

글 박혜란 시 브랜드담당관



미국 남북전쟁(1861~1865) 시절, 텍사스의 목장에는 약 500만 마리의 소가 있었다.  
북부 시장에서 소 가격이 오르자, 남부에서 북부로 소 떼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각 목장을 대표하는 카우보이들이 소 떼를 몰고 갔다. 목장 주인들은 자기 소와 남의  
소를 구분하기 위해 소의 등에 낙인(烙印)을 찍어 표시했다. 이게 바로 브랜드의  
탄생이다. - 발췌 : 강준만의 ‘대중문화의 결과 속’



브랜드란, 어떤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이름이나 기호를 차별화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차별화를 무기로 기업은 브랜드의 충성고객을 만들어내고 성장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브랜드의  
중요성을 깨닫고 브랜드 지상주의를 외치는 시대에 ‘우리는 브랜드가 아니라 상품’이라고 역설하  
는 회사가 있다. 무인양품(無印良品)이다. 도장이 없는(無印) 질 좋은 물건(良品), No brand Good  
Quality를 외치는 무인양품은 제품 어디에도 로고가 들어가지 않으며 브랜드의 인기를 가격에 반  
영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단순한 디자인과 본질적 기능만 남긴 미니멀리즘  
철학 때문에 수많은 브랜드들이 그토록 갖기 원하는 ‘자발적 추종자’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텅빈  
(emptiness)과 여백의 No디자인 철학 때문에 오히려 ‘최고의 디자인 파워’를 지니게 되었다.

1980년 일본의 한 슈퍼마켓 체인의 자체 브랜드로 시작한 무인양품은 현재 전 세계 700여 개 매  
장을 갖추고 의·식·주 일상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전 세계 무인양품 소비자들은  
무인양품이 제안하는 철학과 라이프 스타일을 지지하는 열광적인 팬이 되어 생활 잡화를 하나둘  
무인양품 제품으로 바꿔가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무지러(Mujirer, 무인양품마니아)라고 일컬으  
며 지구와 미래를 걱정하는 생활의 철학을 무인양품을 통해 실천하고 있다.

본질만 남긴 No브랜드 철학으로 오히려 존재감 있는 브랜드가 된 무인양품은 우리에게 말한다.  
“더하지도 화려하지도 말고 본질에 충실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하여 깨닫는다. 브랜드란 더 이상 낙인(烙印)이 아니라 철학(哲學)이라는 것을.



# 우리 시대의 문화유산



글 손장원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최근 몇 년간 외국에 나갈 일이 없다가 올해 무슨 복이 터졌는지 연말아 두 나라를 다녀오는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일본에 이어 떠난 호주는 두 번째 여행지로, 시드니행 비행기에서 얼핏 셈해보니 22년 하고도 2개월 만이었다. 첫 번째 여행은 박물관 전시기법 연수가 목적이었고, 이번에는 해외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격려와 실습실태 점검을 위해 나선 길이었다.

그동안 문헌으로만 접했던 근대문화유산 활용사례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컸지만, 해당 기관이나 회사의 업무시간을 피해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다행히 서버타임이 적용되고 있어 시간에 비해 늦게 어둠이 내렸고, 옛 건물이 밀집한 도심에 위치한 숙소 덕을 봤다.

시드니는 잘 알려진 것처럼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세워져 헤리티지 빌딩(Heritage Building)이라고 불리는 건물이 많고, 이를 제대로 보존·활용하는 도시로 유명하다. 호주박물관이나 세인트 메리 성당처럼 건립 초기의 용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보였다. 호주는행으로 세워진 건물이 퍼브(pub)로 쓰이는 등 고색창연한 건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시내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어 부러웠다. 특히 호주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유산정책의 융통성과 엄격성을 함께 보여주는 사례인 퀸 빅토리아 빌딩을 둘러본 것은 큰 행운이었다. 관광코스로도 유명한 이 건물은 99년간 장기임대를 통해 싱가포르 투자회사가 보수하여 소규모 호텔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건축물의 특성은 유지하고 있다.

이제 인천으로 눈을 돌려보자. 인천의 근대건축물도 건립 초기와는 사뭇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활용방식은 천편일률적이다. 관이 소유한 건물은 박물관이 되고, 민간이 손을

대면 카페가 된다. 문화유산의 특성과 장소에 맞는 활용방법을 찾으려는 진지한 고민 없이 선행 사례 모방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원도심이 온전히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말이나 휴일에만 반짝하는 관광을 넘어 일상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창고를 개조한 수제 맥주집이 들어서는 등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점이다.

시드니 문화유산은 시민의식과 수준 높은 정책으로 유지된다. 시민은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은 경제성과 보존이라는 대립되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한다. 우리나라도 등록문화재 제도를 두어 근대문화유산의 활용도를 높이려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주민은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문화재 지정 해제 요청 서명부를 만들고, 지자체는 유서 깊은 건물 철거를 반복한다. 마침 인천시가 문화유산 중장기종합발전 5개년계획과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니 여기에 기대를 걸어본다.

시드니 체류 기간 묵었던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옆에 걸려있던 패널이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패널에는 호텔이 세워질 당시의 평면도와 입면도, 건물의 역사가 자세히 담겨있었다. 지금 우리가 세우는 건물도 100년 뒤에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호주 도심에 위치한 근대건축물이 살아남은 이유는 당국의 보호정책도 한몫을 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건물들이 그 시대의 문화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껍데기만 흉내 내 지은 건물에 역사와 문화가 담길 수 없다. 건축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간과한 채 짝퉁을 세우는 정성(?)을 이 시대의 가치가 담긴 최고의 건축물을 짓는 동력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은 디테일 안에 있다.(God is in the details) - Ludwig Mies van der Rohe

루트비히 미스 반데어로에는 독일 바우하우스의 3대 교장으로 나치의 압박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가 자신의 건축세계를 펼친 대표적인 모더니즘 건축가이다. ‘더 적은 것이 더 많다’는 말로도 유명한 그는 ‘미니멀리즘(minimalism)’ 건축을 대표하기도 한다. ‘신은 디테일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을 명작이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유명 브랜드가 붙었다고 모두 명품은 아니다. 겉모습만 흉내 낸 물건은 결코 명품이 될 수 없다. 건물이란 물건이란 고객이 만든 사람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진정한 명작이다.

## 강화 사기리 탱자나무



사진 오인영 남구서천자연문화회정

허허벌판, 이 악물고 맞이한 바람은 매섭고 사나웠으리라.  
살아남았으나, 많은 가지들이 사라졌다.  
역사의 풍파를 견뎌낸 나무를 위해  
후대<sup>後代</sup>는 버팀대를 놓고 야트막한 울타리를 쳤다.  
하지만 400여 년 전, 이 남루한 나무는  
나라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온몸으로 울타리를 쳤다.  
몽골과 후금<sup>後金</sup>이 침략했을 때  
탱자나무는 피란 온 왕족이 머문 성 밖에 심어졌다.  
줄기에 굽고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있어  
외적의 공격을 막거나 더디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길가에서 만나는 작은 나무는  
민족을 수호<sup>守護</sup>한 강화의 큰 긍지를 머금고 있다.  
탱자나무의 이름난 향기는,  
이 벌판에서 유독 진하게 느껴진다.

나이 : 400년 / 나무 높이 : 3.56m  
특 징 : 대부분 가지는 고사했고 동쪽 동쪽 가지만 살아남았다.  
탱자나무가 서식할 수 있는 최북단 한계선에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해 보호 중이다.